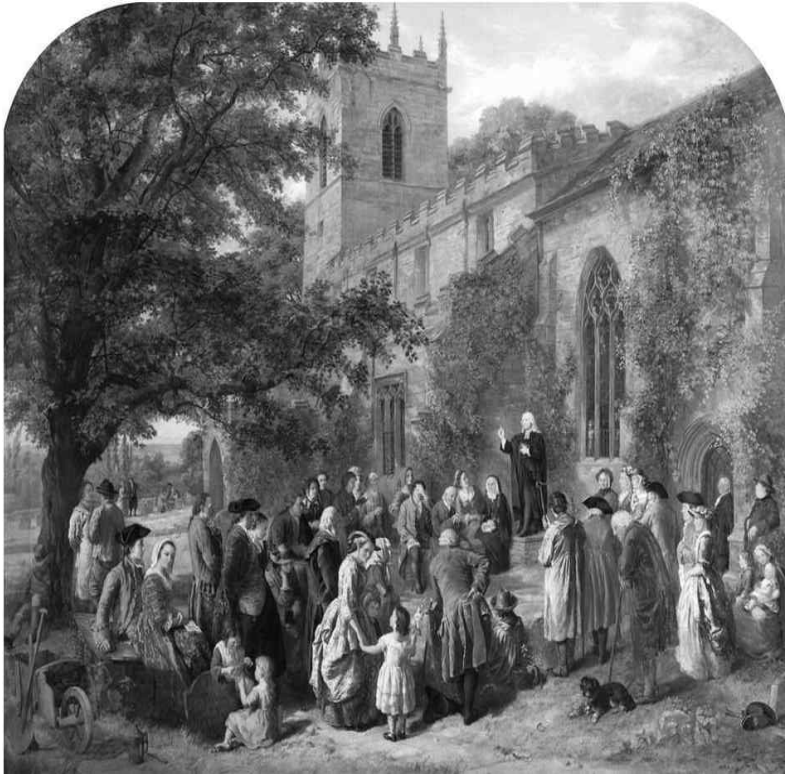


웨슬리언 영성 수련

(Wesleyan Spiritual Formation Retreat)



주 제 : 코로나 시대의 웨슬리언 영성 형성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12월 18일(금) 09:30~12:30

장 소 : 기도 채플

참 석 자 : 1/4 학기, 2/4학기 & 1/6학기, 2/6학기 (총 60명)

지도교수 : 양재훈, 나형석, 이세형, 서영석, 서명수, 김수천

일 정 표

시간	10월 23일 (금)		담당
09:15~09:30	사전준비	ZOOM 접속 및 출석 체크	담당 조교
09:30~09:45	영성형성을 위한	환영 인사 및 프로그램 O.T	양재훈 목사
09:45~10:15	여정의 출발	개회 예배	박해령 목사
10:15~10:45	Session I 영성형성을 위한 정화의 길	프로그램 안내	이세형 목사
10:45~10:55		정화를 위한 성찰과 침묵기도	
10:55~11:05		그룹별 나눔	
11:05~11:15		전체 나눔	이세형 목사
11:15~11:25		휴식	
11:25~11:30		2차 ZOOM 접속 및 출석 체크	담당 조교
11:30~11:35	Session II 창조물 묵상을 통한 영성형성	프로그램 안내 및 창조물 선택	양재훈 목사
11:35~12:00		개인별 묵상	
12:00~12:20		반별 소그룹 나눔	담당 교수
12:20~12:30		전체 나눔	양재훈 목사

시간	12월 18일 (금)		담당
09:15~09:30	사전준비	ZOOM 접속 및 출석 체크	담당 조교
09:30~10:00	아침 경건회	예배	서명수 목사
10:00~10:30	Session III	웨슬리언 의식 성찰	서영석 목사
10:30~10:40		성찰과 침묵기도	
10:40~10:50		그룹별 나눔	
10:50~11:00		전체 나눔	서영석 목사
11:00~11:15		휴식	
11:15~11:45	Session IV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	김수천 목사
11:45~11:55		침묵기도	
11:55~12:05		소그룹 나눔	
12:05~12:15		전체 나눔	김수천 목사
12:15~12:30	파송	성찬식 및 파송	나형석 목사

- 멘토 & 멘티 -

멘토	서명수 교수
멘티	선의 , 이한국 , 김성학, 김기월 이상호 유성식, 박주현, 조성민, 박예찬, 허정희 박은정, 김진원, 양우석, 이혜옥, 이에녹
멘토	서영석 교수
멘티	김단비, 정헌민, 김찬영, 김예인, 원종범 강종찬, 이효준, 이석형, 한백현, 최승빈 조덕희, 강한샘, 남강우, 홍미연, 김학숙
멘토	이세형 교수
멘티	권혜미, 김은총, 이주영, 한민수, 유주원, 김혜분, 김 현, 허경희, 김승환, 사만, 윤문숙, 김마리아, 배은주, 고요한, 최순종,
멘토	김수천 교수
멘티	이재린, 이에본, 황은찬, 윤수빈, 함정균, 배서권, 전지혜, 지명현, 김기진, 한경석 박윤희, 최유리, 주철홍, 백창훈, 진주신

Session I. 영성형성을 위한 정화의 길

관상기도를 통한 무의식의 정화

- 이세형 목사 -

1.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제가 여럿이 합해져 있습니다. 관상기도. 무의식. 정화라는 각기 다른 용어들이 뭉쳐진 주제입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시겠습니까? 제게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2. 저는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거시적 사유를 하는 폴 리콥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콥르의 관심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에 집중했던 철학자인 듯 싶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상징이 주어졌고,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했습니다. 상징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이 지칭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칭하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다.'라는 정체성과 관계하는 것이고요, 의미하는 것은 자기 자리 혹은 자기 정체성을 넘어 어떤 지향점으로 확장해가는 개방성을 갖게 됩니다. 상징이 상징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그것이라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아직 열려지지 않은 의미를 향한 지향성 혹은 개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실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듯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존재 자체가 '거기 그렇게'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징의 이중성은 존재의 이중적 존재방식 혹은 존재의 이중적 구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이중적 존재 방식은 인간이 관계하는 관계망에서 각각의 범주가 있는데 객관적 과학의 범주, 현재에서 과거로의 탐색인 정신분석, 현재에서 미래로의 탐색인 정신현상학, 그리고 영원 혹은 미래로부터 현재로의 탐색인 종교현상학 혹은 종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범주들은 범주가 다르지만 각각의 범주 안에서 이중적 구조에 기초하여 인간에 대한 궁극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범주들은 다른 범주 혹은 영역을 점유하고 있기에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찾아가는 길은 이런 다른 영역의 갈등을 순환하면서 해석의 순환을 가지는 것입니다. 해서 객관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과 영적 영역을 순환하는 중에 그 순환 속에서 자기가 탄생되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4. 오늘 저는 거시적 구조 중에서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을 포함한 심층 심리학 영역과

기독교 영성의 영역 중에서 관상기도를 살피는 곳으로 좁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신분석에 참여하고 관상기도에 참여하면서 제가 얻은 열매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정신분석공부는 2011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 10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정신분석을 통해 얻은 선물은 말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저는 정신분석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볼 수 있었고, 이 욕망을 현실구조에서 건강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것을 떠나보내면서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무엇을 누군가를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고 하겠습니다.

6. 기도과 관련해서 저는 통성기도를 통해 하나님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참석한 학생회 집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였고, 이후 교회가 제공하는 기도회나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침투해 들어가는 기도를 훈련받았습니다. 가끔은 내 욕망을 투사하는 것인지 의문도 있었지만 이 기도는 나를 감각적 열정과 더불어 저로 하여금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예수의 기도’를 배우고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미 연합감리교회가 제공하는 다락방 프로그램과 미 허드슨 강 주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트레스 디아스에서의 훈련,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헨리 나우웬 영성 수련 등을 참여하면서 ‘침묵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 미 연합감리교회의 다락방을 통해 한국 감리교회에 정착하고자 마련한 파이프 데이즈 영성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을 소개받으면서 렉시오 디비나에 기초한 기도와 프랜시스칸의 자연을 통한 묵상기도에 대해 배우고 훈련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는 영성 아카데미에서 참여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성아카데미에서 신학자로 강연자로 초청을 받기도 했고, 지난 2년 동안 미국 덴빌에 위치한 샌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Two Year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6개의 영성 프로그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8차례의 훈련 기간 동안 과외로 새벽마다 향심기도 모임을 통해 현대적 관상기도를 훈련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상기도와 관련해 “관상기도를 통한 무의식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 2018년 여름 샌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투어 아카데미 수련 중이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그 강의를 묵상하며 침묵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 산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앉았는데 제 옆으로 꾸불꾸불한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끄러미 그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무가 내게 반응하여 왔습니다. “내 모습이 어째서?” 저는 처음에 이 물음이 나무가 내게 말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제가 저에게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제게 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내 모습이 어째서?” 이 경험은 이후 내 삶을 지배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 정말 달라진 것입니다. 무슨 일을 앞에 두고 혹은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제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어째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했고 불렀고 세웠고 구원했어. 네 모습 이대로 아름답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어. 그래 네 모습이 어째서....이것이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온 것인지? 기도의 선물인지? 모르지만 저는 내 모습에 대해 담담히 인정하고 뭔가 존재로 가득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8. 정신분석과 관찰기도가 주는 유익은 둘 다 우리에게 “인격적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치료는 성격(인격)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신분석 입장에서 병리적인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성장과 변화를 거치는 동안 어느 특정한 시기에 고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안에 있는 유아가 곧 병리적인 것이죠. 나이는 40인데 6개월 아이의 발달과정에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이 병리적인 것이죠. 정신의 병이란 그 고착된 반복을 특징으로 하고 이는 죽음 충동이란 말로 요약됩니다. 정신분석의 공식은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 배후에 환상이 있고 환상 배후에 외상적 실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정신분석에서는 억압된 무의식의 영역에 숨겨져 있거나 기억에서 배제된 외상적 실재를 찾아 무의식의 의식화를 거치게 되면 치료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의 위대한 발명은 우리가 지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영역 너머 곧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잠재태의 세계로서 무한한 무의식의 영역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관심하면서 그는 성의 욕망을 억압했던 영역에 환원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그의 무의식 개념은 철저하게 개인 무의식의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이트가 만났던 환자들이 주로 신경증 환자들(히스테리, 강박, 공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의식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융은 정신증 환자들을 만나 정신세계를 탐구했기 때문에 개인 무의식을 넘어 집단 무의식 더 나아가 집단의 경계를 헤치는 무정형 혹은 무경계로서의 자기를 궁극적 자리로 이해했습니다.

9. 프로이트는 먼저 인간을 이 세상에 던져진 에너지 덩어리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덩어리는 생명 덩어리 혹은 이드라는 말과 교환 가능한 말입니다. 생명 덩어리로서 아

기는 그 안에 추동, 본능, 혹은 충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생명충동(본능)이라 합니다. 이 생명본능은 아기가 외부 현실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를 지켜내려는 본능 곧 자기존 본능 혹은 생존본능과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아기는 성장을 해 가면서 자기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대상을 향해 쏟습니다. 그런데 대상에게 쏟았던 에너지들이 왜곡되거나 거절당했을 경우 그 에너지는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거나 배제되어 병리적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왜곡되거나 거절당한 에너지는 억압되어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하게 되지요. 따라서 고전 정신분석의 과제는 이처럼 무의식에 억압되어 숨겨진 성적 욕망을 혹은 거부되고 폐제된 에너지를 찾아내어 의식화함으로써 자아 안에 건강하게 자리하도록 하여 자아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발달을 진화론적 발달단계로 보았고, 엄마와 아이의 접촉이 있게 되는 신체의 부위를 따라 구강기-항문기-남근기-성기기의 순으로 발전해 간다고 보았고, 각 단계는 각각의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성취하지 못할 경우 무의식에 병리가 자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병리의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석가는 자유 연상을 통해 무의식적 환상을 탐구하여 외상적 실재를 찾아냄으로써 억압된 병리에서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억압된 욕망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굴뚝을 청소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초기 프로이트는 이를 일러 [무의식의] 정화라 하였습니다.

10. 반면 프로이트 이후 생겨난 대상관계와 자기심리학 그리고 최근의 상호주관주의는 아이의 욕망이 대상을 향한다고 보았고, 초자아의 탄생이 오이디푸스기가 아니라 구강기 초기부터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이는 처음부터 생명충동과 함께 죽음충동을 갖고 태어나며 대상을 상대하는 주체로서 탄생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는 외부 세계와의 대면에서 아이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에게는 좋은 대상으로 불쾌를 경험하게 하는 대상에게는 나쁜 대상으로 분열시켜 부분 대상으로 경험합니다. 아이는 외부 대상을 경험하면서 나쁜 대상을 경험할 때 자기의 일부인 죽음 충동을 분열시켜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대상에게 나쁜 자기를 분열하여 공격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분열하여 대상을 공격한 아기는 외부 대상을 자기를 멸절시키려는 대상으로 또는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멜라니 클라인은 이처럼 자기를 분열시켜 대상을 부분대상으로 경험하는 자리를 일러 편집-분열적 자리라 하였고, 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경험하면서 대상에 대한 상실을 슬퍼하는 자리를 우울적 자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두 병리적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상적 발전 단계에서 거쳐가는 성격 탄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11. 프로이트는 아이의 성격 형성을 발전 과정의 단계로 표현하였지만, 대상관계의 창시

자인 클라인은 이를 자리로 표현하여 구조적인 연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단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리로 볼 것인지는 관상 기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화에서 조명으로 조명에서 일치로 나아가는 단계로 볼 것인지 정화-조명-일치를 자리로 볼 것인지? 라는 유사적 패턴을 만나게 됩니다.

12. 고전정신분석은 현재에서 과거 혹은 원초적 자리로의 탐사이고, 현대에 올수록 정신분석은 지금 여기가 이미 유아기의 구조를 드러내는 무의식적 환상의 자리라 보아 현재적 상황을 탐사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고전정신분석이든 현대정신분석이든 무의식적 환상 혹은 무의식적 구조를 살핀다는 점에서 공동의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 영역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저들이 만났던 환자들이 달랐기 때문이고, 이는 시대성과 저들이 만난 내담자들의 내적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전정신분석은 아버지-어머니-아기라는 삼원적 구조에서 신경증 환자를 다루었던 반면,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자들은 어머니-아기라는 이원적 구조에서 경계선상애, 우울증 환자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심리학자들은 자기에 환자들의 구조에서 그 이론적 구조를 그려내었고, 상호주관주의자들은 인격주의 철학의 영향에서 관계 안에 있는 인간의 내적 그림을 그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증 환자를 다루었던 융은 더 깊은 무의식 층위를 다루면서 거시적인 인간 내면의 지도를 그려낸 것이고요.

13. 인간의 병리와 관련해서 신학적 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리콰르는 죄와 관련해서 흠-죄-허물이라는 용어로 죄의 이해를 상세하게 발전시켜 갑니다. 보통은 죄를 이해할 때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근본적인 죄로 이해하였고, 그 단절의 결과 드러나는 죄들을 기술하면서 죄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설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리콰르가 말하는 흠-죄-허물은 외부와의 접촉에서부터 내면으로 향하여 죄가 인간 실존 안에 존재적으로 자리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듯싶습니다.

죄는 관계의 침해이고, 인격관계의 훼손입니다. 죄를 이해함에 있어 먼저 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흠이란 얼룩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온 부정한 어떤 것입니다. 금기를 훼손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흠은 성과 관련되어 논하여졌고, 이 맥락에서 순결과 처녀성이 일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흠은 접촉을 통해 오염시키는 물질 같은 것인데, 이 더럽히는 접촉은 두려움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통해 주관적이 됩니다. 이 두려움은 윤리적 위기의식으로 발전합니다. 흠에는 더럽히는 물질이 있고,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흠은 금기를 통해 말의 세계에 들어오고, 고백을 통해 말의 세계

에 들어옵니다. 말의 세계에 들어온 흠은 죄의식 혹은 죄책감으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식이 내면화와 개인화를 통해 자리하게 되면 허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흠에서 죄책으로 죄책에서 허물로 죄의 경험이 깊어지는데, 이를 정신분석적 맥락에서 보면 외상이 병리적 깊이에 따라 질투와 경쟁심에서 시기심으로 향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신경증적 단계와 우울적 단계에서는 경쟁심이나 질투심에 지배되지만 유아기 초기의 구강기 초기의 장애를 가진 병리는 시기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기심은 타고난 공격성의 표현으로 주체에게 생명을 제공하거나 지원해주는 외적 대상을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기심이란 대상이 가진 생명 좋은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학의 원죄와 견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질투심이란 파괴 대상이 경쟁자에게로 옮겨간 경우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려면 그 누군가의 좋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심은 좋은 그 자체를 망쳐야 하고 대상이 좋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나 경쟁심은 죄책감의 영역(실존의 영역)이고 시기심은 수치의 영역(존재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인간 병리의 층위는 죄에 대해 다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존 웨슬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는 죄의 능력을 해결하고, 칭의와 초기의 성화는 죄책을 해결하며 온전한 성화는 죄 자체를 해결한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죄를 경험의 차원에서, 신체-심리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은 오늘 날 정신분석이 병리적 성격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에 힘입어 비교 연구가 가능한 영역이라 보여집니다.

14. 제가 경험한 관상기도의 유익은 점점 기도가 지속될수록 우리의 내적 인간이 더 충만하고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석의 과제는 인간이 생애를 통 털어 생명충동과 죽음충동의 대결로 이어지는데 정신분석에 노출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명 충동이 충만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관상기도의 경우에는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기도 가운데 있으면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현재화하고 현실화하고 하나님을 담아가는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주변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조화롭고 평화롭게 변화됩니다.

15. 저는 작년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내게 다가왔다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는 나는 현재를 살겠다. 둘째는 나는 삶을 계획하지 않겠다. 셋째는 이기는 삶을 내려놓겠다. 지는 계임을 하고 손해 보는 삶을 살겠다.’ 정신분석가 알프레드 비온은 분석가에게 “기억과 욕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잡히지 말고 미래에 잡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고 새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분석가와 내담자와의 만남은 꿈꾸는 현재이고 변화의 현재이며 무의식적 환상의 현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분석가와 내담자가 함께하는 상담 세팅은 관상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관상기도의 contemplation이라는 용어가 ‘함께 성전 안에 들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궁 안에 같이 드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에 드는 기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담세팅에서 분석가는 내담자에게 어머니이고, 담아주는 자, 안아주는 자, 견뎌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담아주는 세계가 내담자의 무의식적 환상이 허용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상호적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전이, 역전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변화의 자리는 현재적 사건이고 과거와 미래에 억매이지 않는 자리,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점에서 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짐은 분석적 맥락을 삶으로 가져가겠다는 기도였던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분석적 상황을 삶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분석 상황의 지배자는 분석가가 아니라 내담자입니다. 내담자에게 주인의 자리를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대상이 주인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나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지 싶습니다. 소리 내어 하는 기도는 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가끔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고 하나님에게 억박지르며 명령하기조차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소서. 얼마나 오만하고 전능감과 과대자기에 빠져 지배하려 했던 것인가요? 관상기도는 포기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이고 궁극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응하고 수동적이 됨으로써 하나님 화되는 기도입니다. 진정한 포기는, 지배와 존경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정신분석과 관상기도를 통해 달라진 또 다른 제 모습은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가진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익숙한데 누군가로

부터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주는데 익숙합니다. 받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신이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 이 모두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섬기기를 선택할 때 허용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웃과의 관계가 주고받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은 나의 일을 완벽하게 행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으니 완벽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허용되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삶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여행이 시작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소리 내어 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여정이고 그냥 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7. 기도와 관련해 마카리우스는 금욕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초보자의 수고스러운 기도와 영성생활이 진보한 사람을 위한 쉬운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영성생활의 단계를 세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단계인 정욕과의 투쟁단계를 금욕으로 극복하면 관상생활이 시작된다고 보았고, 관상은 열등한 차원의 관상과 보다 우월한 차원의 관상의 연속적인 관상단계로 나뉘었다고 보았습니다. 후에 위 디오니시우스는 이를 변형하여 정화, 조명, 일치의 단계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기독교 영성에서 전통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신비가인 에벌린 언더힐은 그녀의 책 『신비주의』(Mysticism)에서 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의 정화, 조명, 일치의 세 과정을 자아의 자각, 정화, 조명, 일치의 네 단계로 확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18. 5세기말 활동했던 위 디오니시우스가 말한 세 단계 영적 성숙은 본래 교인의 직제, 즉 예비신자와 평신도 그리고 수도사에 관계되어 사용하던 개념이었습니다. “부제들은(The deacons) 정화시키는 계층이고, 사제들은(The priests) 조명을 주는 계층이다. 고위 성직자들은(The hierarchs)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서 완전케 하는 계층이다. 정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신성한 직관이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한다. 거룩한 사람들은 관상적인 계층이다. 완전케 된 계층은 단순한 삶을 사는 수도사들의 계층이다.” 여기서 정화, 조명, 완전이라는 세 가지는 도덕적 개념보다는 다양한 단계의 영적 지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정화란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조명은 신적 상징들을 깨달아 아는 상태이며, 완전이란 하나님과의 합일이라기보다는 신적 조명으로 인해 이해된 완전한 신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화, 조명, 완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영적 이해의 길로 이해되었습니다.

19. 이러한 정화, 조명, 완전(일치)의 과정은 시내 산의 모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들로부터 격리되면서 정화됩니다. 이스라엘 무리로부터 떨어진 모세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직접 뵙니다. 그 후 모세는 인간 정신의 모든 인식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무지의 어둠”(the mysterious darkness of unknowing), 곧 신비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합일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은 모세가 정화되고 조명되며 나아가 하나님과 합일되는 과정으로 그의 영성이 점점 고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20세기 신비가인 애벌린 언더힐은 전통적인 이 과정들을 수용하면서 정화 단계 이전에 ‘자기에 대한 자각’(the awakening of the self)이라는 과정을 첨가합니다. 따라서 언더힐은 영적 성장의 과정들을 ‘자기의 자각’(the awakening of the self), ‘자기의 정화’(the purification of the self), ‘자기의 조명’(the illumination of the self), ‘일치하는 삶’(the unitive life) 이렇게 네 단계로 보지요.

21. 관상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유롭게 자신을 열어놓는 상태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부딪혀 옴으로써 기도의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일치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지성적인 냉철함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heart-felt) 경험이고, 정감적인(affective)인 경험이며, 분석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관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가들은 관상기도를 방법이라기보다는 단계적인 의미에서의 극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일치성을 이루었느냐의 정도에 따라 추리적 묵상(discursive meditation), 정감기도(affective prayer), 불완전한 관상(inchoate contemplation), 완전 관상(perfect contemplation) 등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22. 오먼은 완전한 관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하나님 현존의 체험이 현저하다. 2). 영혼 안에 초자연적인 것이 엄습하는 느낌을 받는다. 3). 본성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 4). 능동적이기 보다 수동적이다. 5).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혼잡스러울 수 있다. 6). 관상자가 하나님의 활동 아래 있다는 안정감과 확신을 갖는다. 7). 관상자가 은총상태에 있다는 윤리적 확신을 갖는다. 8). 신비적 체험은 그 체험의 서술이 매우 어렵다. 9). 하나님과의 일치의 체험과 동시에 존재적 변화를 가져온다. 10). 신비체험은 흔히 신체에 반응을

일으킨다. 11). 신비적 기도는 흔히 기능정지나 결박을 가져온다. 12). 실천적 삶에 대한 큰 충동을 느낀다.

23. 오리겐과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관상기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유념적인 방법(긍정의 길, kataphatic)’과 ‘무념적인 방법(부정의 길, apophatic)’을 구분하였습니다. 빛의 신학자였던 오리겐(Origen, ca. 185-255)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학자로서 인간의 목적이 타락 이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구속이란 인간이 본래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요, 관상이라는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4. 오리겐은 인간이 세 단계를 거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중 첫 단계는 도덕적인 조명인데 그것은 죄로부터 떨어져 나와 덕을 실천하는 삶(praxis)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관상(테오리아, theoria, natural contemplation)이고, 마지막은, 하나님 관상(테올로기아, theologia)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리겐이 말하는 움직임은 빛에서 더 밝은 빛으로의 움직임이며, 오리겐은 어둔 밤이나 무지를 통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념적인 방법(긍정의 길, kataphatic)은 개념이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 개념, 상징, 이미지를 포함하여 -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분께 이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나 인간의 모든 선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실재를 엿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도에서는 기도자의 능동적 활동을 인정할 뿐 아니라 능동적 활동은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25. 갑바도기아 교부들(Cappadocian Fathers)중 하나인 니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ca. 335-395)는 관상 이해의 다른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히 그의 대표작인 『모세의 생애』에 잘 나타납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그레고리는 오리겐이 했던 것처럼 세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오리겐의 것과 정반대입니다. 즉, 빛에서 어둠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의 첫째 단계로, 모세의 빛의 경험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수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음 두 단계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중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어두운 구름(nephele)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두 번째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짙은 어둠(gnophos)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인지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자신을

드려내줍니다. 도리어 이 어둠 안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6. 이러한 무념적인 방법(부정의 길, apophatic)에서는 긍정의 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내면의 실재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나 사유, 단어, 상징도 인간을 하나님 실재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념적인 방법(부정의 길, apophatic)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 이미지, 상징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심을 직접 체험하여 그 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실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개념적인 ‘장갑’을 벗어던지고 ‘빈 손’ 어둠 속으로 가야합니다.

27. 기독교 영성전통에서 무념적인 접근의 성향을 가진 영적 작가로는 14세기 『무지의 구름』의 저자, 마이스터 에카르트, 16세기의 십자가의 요한, 그리고 20세기의 토마스 머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념적인 접근의 성향을 가진 작가로는 아빌라의 테레사, 그리고 로울라의 이나시오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테레사의 주요 작품들인 『하나님 자비의 글』, 『영혼의 성』, 『완덕의 길(*the way of Perfection*)』은 유념적인 전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테레사는 말이나 개념을 넘어서는 무념적인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념적인 전통에 뿌리를 둔 머튼이나 십자가의 요한이 많은 이미지나 개념, 또는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디오니시오도 그의 저서 『신의 이름들(*the Divine Names*)』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하는 유념적인 접근을 사용하지만, 이 긍정의 길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완전하게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8. 비록 무념적인 접근과 유념적인 접근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과 접근에서 서로의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찾아감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 이 두 개의 길은 우월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목표, 곧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목표를 위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29. 긍정적인(kataphatic) 방법은 단어, 개념, 이미지, 상징, 결단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말에 주의를 집중하며,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며, 더 선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세상에 나가서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kataphaic)"이라는 단어는 "아래로"(down)라는 의미를 가진 Kata와 "연설(speech)"라는 의미를 지닌 phasis라는 두 개의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전통에서는 우리의 지식과 단어와 이미지와 감각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방을 말로 꼼짝 못하게 함(talking down)"으로써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신성에 대해 말합니다.

긍정적인 전통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긍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전통에서는 기도를 하나의 관계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속한 것을 연구하여, 그 원리들과 통찰들을 우리의 기도 관계에 적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자신이 보고 아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아는 모든 것을 능가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개념과 이미지와 상징 등을 인정하는 이 전통의 대표적 인물은 이그나티우스 로욜라(St. Ignatius of Loyola)이며, 이 시대의 주도적인 옹호자는 테이야르 드 샤르댕(Thilhardde Chardin)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 현존하십니다.

30. 부정적인(apophatic) 전통은 긍정적인 전통과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다. "부정적인(apophani)"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전통은 말이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지닙니다. 이 전통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다고 의식합니다. 이것은 무한한 것에겐 굴복하는 방법, 자신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역설, 언어의 절제, 궁극적으로는 침묵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복종,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수용의 방법입니다.

부정의 전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강조하는 부정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개념이나 상징이나 이미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망각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의한 하나님 이해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예를 사용해도, 나의 말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묘사할 수 없고, 나의 지성과 유한한 기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지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우리의 정신은 개념이

나 이미지나 상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두워집니다. 이 전통을 대표하는 두 인물은 『무지의 구름』(The Cloud of Unknowing)의 저자와 십자가의 성 요한(St. John of the Cross)이고,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역시 이 전통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31. 긍정적 전통이나 부정적 전통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전통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면서도 인간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긍정하기 위해서 성경에 계시된 단어나 성례전이나 상징을 의지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두 전통은 기도에 대해 총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한하는 이미지들을 방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정의 전통은 우리가 이미지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초월하는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두 방법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필요하며,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합니다.

32. 정확라는 말로 다시 향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을 탐구하며 성숙해 가는데 “정화의 길, 조명의 길, 합일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삶의 대부분을 이 세 길 사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위에 말한 길 중에 둘이나 심지어는 세 가지 길을 동시에 밟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33. 정화의 길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끌리면서도 세속의 유혹과 죄의 습성, 윤리적 약점 또는 단순한 무지로 말미암아 사랑을 찾는 길에서 어떤 때는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 무엇을 해 달라고 청하는 기도로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걸을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기는 법부터 배워야 하니까요. 이 길을 정화의 단계(사랑하기)라 합니다.

회심 자체가 매우 급작스럽게 혹은 매우 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화의 작업은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힘써야 한다. 정화의 단계는 외적 감각의 정화, 내적 감각의 정화, 정욕의 정화, 지성의 정화, 의지의 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유혹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성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알려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명의 단계에 접어들니다.

33. 조명의 길은 수동적인 자세로 사랑하도록 맡기는 길입니다. 조명의 길에서 사실상 관상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열심히 찾게 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총의 능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죄악의 길로 다시 빠질 수도 없고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맑고 밝은 내적인 평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내적인 소동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의 가능성과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적인 비전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인지하며, 여전히 그 길을 걷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자기 포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화단계에서의 정화가 능동적인 것이라면, 조명단계에서의 정화는 수동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4. 일치란 합일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며 사랑 나누기의 길입니다. 조명의 단계를 지나며 자아는 더욱 고양되고 확장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깊이 거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바로 완성의 단계인 일치의 단계(사랑 나누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빛나는 구름처럼 우리를 감싸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상상과 기억이 점차로 사라지면서 깊은 평정의 감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기능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안으로 빠져들어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일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인들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부름 받은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길에 한 발을 (아니면 두 발을 모두) 들여놓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35. 십자가의 요한이 말하는 '어둔 밤'은 “영혼의 의지에 즐거운 것들과 육체에 감미로운 것들, 그리고 세상의 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모든 감각의 욕구를 끊어버림

과 정화”를 말합니다. 밤은 정화의 전 과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출발점에서부터 말 할 수 있는데, 영혼이 전에 지니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욕구를 없애면서,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없앴과 부정이란 인간의 모든 감각들에게는 밤과 같은 것입니다. (출발점의 문제) 둘째는 영혼이 이 일치로 가야하는 여정이나 방법에서부터 말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란 곧 인간의 지성에게는 마치 밤처럼 또한 캄캄한 것입니다. (여정의 문제) 셋째는 영혼이 도착하는 곳인 하나님 편에서부터 말 할 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영혼에게는 바로 어두운 밤입니다. (목표의 문제)

하나님과 거룩한 일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밤들을 거쳐야 합니다. 동시에 밤의 세 부분은 사실 하나의 밤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인 밤처럼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의 밤인데 사물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초저녁에 비교됩니다. 신앙을 말하는 둘째 밤은 완전하게 어두워진 한 밤중에 비교됩니다. 셋째 밤은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새벽녘을 말하는데 그때에는 대낮의 빛이 즉시 도달합니다.

이상 세 가지가 영혼이 하나님과 신비로운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거쳐 가야하는 밤들입니다. 그런데, 이 '밤'의 영혼은 맹인(盲人)처럼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서 이 밤의 여정에 유일한 안내자인 신앙(信仰)에 내맡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이 밤을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삼단계로 나누었으나, 십자가의 요한은 영혼의 활동이 우세(優勢)한 즉 영혼 자신이 주도권을 갖는 능동적인 밤과 하나님의 활동이 우세한 즉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직접 개입하셔서 영혼을 정화하는 수동적인 밤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능동적인 부분이 밤의 길에서 무엇보다 첫째 부분을 차지하고 수동적인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더 우세하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능동적 밤과 수동적 밤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으면 정화의 효과를 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두 가지 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쪽이 주도권을 가질 때 다른 쪽은 역할이 약화 혹은 열세한 것이지 결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취하실 때부터 영혼은 순종해야 하며, 영혼의 능동적 밤은 수동적 밤에 의해 조절되고 맞추어지며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36. 영성의 산을 오르기 위한 출발점은, 죄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돌아선, 그런 의지입니다. 이 길에서 진보하기 위한 '영혼의 걸음걸이'가 정화와 기도입니다

다. 정화와 기도는 병행적으로 진보하는데, 결과적으로, 정화(淨化)의 어떤 '단계'는 기도의 어떤 '형태'와 상응합니다. 정화와 기도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화의 증가나 감소는 기도의 증가나 감소를, 기도의 증가나 감소는 정화의 증가나 감소를 반드시 유발시킵니다. 정화와 기도는 우세한 활동이 영혼의 활동일 때는 능동적이고, 영혼이 수동적으로 머무르는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세한 활동이 나오는 경우는 수동적이 됩니다. 여기서 '영혼의 수동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순응성 · 온순함'과 같은 말입니다.

37. 『영혼의 어둔 밤』 발췌. 1. [4.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려는 사람은 세속의 정을 온전히 끊어야 한다....하나님과 합일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에 욕 끊기와 맛 없애기의 밤을 거쳐야 한다.(4)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집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어둠을 둘러싼 영혼이 먼저 어둠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티 없이 맑으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도 빛날 수도 없다...정화를 우리는 어둔 밤이라 부른다. 하나님과의 합일에 있어 인간이 치려야 하는 정화, 즉 그 밤이 감성 및 영성의 두 가지라 했고, 그의 양상 역시 능동 및 수동의 두 가지라 했다. 능동의 밤은 “끊음과 씻음으로써, 세상의 바깥일들, 육에 즐거운 것들, 의지에 맞스러운 일체를 끊고 씻어버림이다. (『가르멜의 산길』, 1.1.4) 『어둔 밤』은 감성 및 영성의 수동적 밤을 소재로 한 것. “능동적이라, 영혼이 밤에 들기 위한 일을 제 편에서 할 수 있고, 실제 하는 것”이고, “수동적이라, 영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5)]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감미롭고 행복된 사랑의 생활을 살고 싶어서 철저한 제욕으로써 자기와 일체에 죽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정화의 관상이다. 자기 및 일체의 부정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17) 많은 사람들이 고해신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남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데서 헤아릴 수 없는 질투와 불안들이 생긴다. (23) 완덕에 나아가는 이들은...그 진보와 향상이 겸손에 달렸다...그들은 자기의 한 일을 무로 돌릴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만족은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줄로 생각하여...거룩한 부러움을 지니기가 일쑤다...남은 다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믿는 것...고요와 겸손을 가지고 크게 바라다.(25)...다른 사람을 기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요, 남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오직 하나의 걱정이다.(26) 초심자들 중에는 영적 탐욕이 많다.. 제욕이나 영의 청빈과 같은 완전함은 닦을 겨를이 없다.(28) 진정한 신심이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영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무엇의 본질과 진리에만 있어야 한다. 이 밖의 모든 것은 집착이요 허욕일 뿐이니 완덕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념을 다 없애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라면 없이 사는 것을 멋으로 하는 것...내적인 완전의 진실에만 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일체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다.(29) 영혼이 제 아무리 힘을 써보았자 하나님께 손을 빌리지 않고서, 저 어두운 불 속에서 영혼을 정화시키지 않는 한, 영혼은 능동적으로 - 제 힘만으로는 - 완전한 사랑에 의한 하나님과의 합일을 조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30) 영적인 사음...심령 수행을 하는 도중에도 손 하나 쓰지 않는 채 사음의 충동과 행위가 감성 면에 일어나고 영혼이 기도에 잠겨 있거나 고해와 성체성사를 받고 있는 때에도 그럴 수가 있다...첫째는 대개 본성이 영성의 일에서 느끼는 맛으로부터 온다...이때 위부분인 영은 하나님과 맛과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아랫부분인 감성은 감각이 맛과(31) 낙으로 움직인다. 감성은...부정한 감각이다. 예. 영혼이 그 열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에 잠겨 있는데 한편 감성으로는 관능의 반향과 충동 및 행위를 느끼는 그것이다....감성의 부분...영혼의 정화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런 약성이 없을 것이니...영안에서 감성이 받아지는 것...일체의 영의 나뭇대로 받게 될 것이다.(32) 악마는 다른 때보다도 이런 기도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동요와 교란을 불어넣어서 영적 작업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삼지어는 추잡스럽게 짝이

없는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 보이는 수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이런 것들과 영혼을 덕에 나가게 만든 거룩한 누구 거룩한 무엇과 관련을 지우기까지 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부정한 충동이 생기고 불쑥 일어나는 셋째 원인을 사람들이 이런 충동과 더러운 환상에 대해서 일찍부터 품어오는 공포심이가 일쑤다. (33) 하나님의 영은 선으로써 선을 키워 가시는 것. (34) 감성에서 나는 사랑은 감성으로 끝나고 영에서 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자라서 끝난다는 것. 영혼이 어둔 밤으로 들어가면, 그때 이 모든 사랑이 바로 잡힌다. 밤이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정화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아주 끊어 없애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두 사랑을 다 안 보이게 한다. (35)]

제 5 장. 분노의 허물을 두고 초심자들이 떨어지는 불완전에 대하여: 영성인 가운데 어떤 이들을 영적 분노의 다른 종류에 빠지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어 남의 잘못을 보면 성내지 않고 못 배기는 성민다. * 그런지라 성화같이 남을 꾸짖으며 성깔을 부리는가 하면 더러는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그런 짓을 하는 때가 있으니(36) 이는 다 영적 온유를 거스르는 것이다. 3.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았을 때 겸손은커녕 자기 자신이 못 견디게 미워서 성을 내는데, 그 참지 못하는 정도가 어쩌나 대단하던지 단 하루 만에 성인이 다 되고 싶어 할 정도다. 그들의 결심은 많기도 하고 엄청나기도 하다. (37)]

제 6 장 영적 탐심에 대한 불완전들을 다름: 겸손 된 순종이 더 좋은 것.(40) 참다운 신심이란 자기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해 해드릴 생각 하나로 인내와 겸손으로 무미한 속을 끝까지 버티는 데에 있는 법... 맛에 끌리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 다른 중대한 결점은, 십자가의 험한 길을 가는 데에 자못 더디고 게으르다는 것이다....사물의 가치와 완성은 많은 일이나 작업의 맛에 있지 않고 무릇 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데 있다....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 부정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42)]

제 7 장. 영적 질투와 나태에 관한 결함들에 대하여: 사랑에 질투가 있다면 그것을 거룩한 시새움으로서 남 같은 덕이 없음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지닌 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자기는 모자람이 많을망정 남은 모두가 뛰어난을 만족으로 삼는 것이다.(43) 나태로..완덕의 길을 제쳐놓고 제 뜻, 제 재미를 따라서 하나님 뜻보다도 제 뜻을 채우려 하는 것...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도로 얻을 것...나태한 자들이 또 엄증을 느낄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 명령을 받을 때. 영의 기쁨이나 맛으로 사는 사람들. 완덕의 역세고 힘드는 일에는 약해빠져서 마치도 단 것으로 자라나는 애들과도 같이 고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피해버리고 영의 즐거움이 있는 십자가를 보면 질색을 한다.(44)]

제 8 장. 첫째 노래의 첫째 구절을 밝히고 이 어두운 밤을 풀이하기 시작함: 이 밤을 우리는 관상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영성인에게 두 가지 어둠을, 혹은 정확을 마련한다. 인간의 두 가지 부분을 따라 감성적인 것과 영성적인 그것이다....감성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감성을 영에 알맞게 함으로써 감성 면에서 정확을 하고 또 하나 다른 것은 영성의 밤, 혹은 정확로서 이로 말미암아 영혼은 영성 면에서 스스로 정확 및 무일물이 되어 하나님과 사랑의 합일을 꾀하는 것이다. 감성의 밤은 보통 것으로 많은 사람, 말하자면 초심자들에게 있으므로 먼저 이를 다루겠고, 영성의 밤은 특수한 것으로 이미 수련을 거듭하고 나아간 이들의 것이므로 다음에 다루겠다...첫째 정확: 밤은 쓰겁고 무서운 것. 둘째 밤...그 무시무시하고 놀라움이야말로 어디다 비길 수가 없다.(46)

제 9 장 영성 인이 이 밤과 감성 정확의 길로 나아감을 알 수 있는 표징들: 메아름. 첫째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맛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에서도 아무런 낙을 못 얻는 그것이다. (48) 둘째는 하나님의 일에서 맛

을 못 느끼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퇴보함이라 믿고 행여 하나님을 잊을새라 애타게 찾음이다. 감각적인 부분은 순수한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영이 낙을 누릴 제면 육은 재미를(50) 잃고 일할 힘이 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영양을 섭취하면서 굳세어지고, 하나님께 소홀함이 없도록 조심하는 데에 그전보다 훨씬 더 빈틈없이 열심 하게 된다...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서 음식을 내리셨을 때...각자의 당기는 입맛에 따라서 별의별 맛이 다 갖추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이집트에서 먹던 양파와 고기 맛에 워낙 젖어버린 입천장이라 천상의 만나의 그 신비로운 감미보다도 오히려 고기를 달라고 애걸복걸하였었다. 우리의 탐욕은 이토록 낮은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51) 셋째는 아무리 자기편에서 할 일을 다 해도 그전처럼 상상의 감각으로 묵상이나 추리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이다. 그 이유는..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시작하시지만 그전처럼 감성을 통하지 않고 순수 영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이다. (53)

제 10 장. 이 어두운 밤에 스스로 가져야 할 그들의 태도: 감성의 밤.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성의 생활에서 영성의 생활, 즉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주셔서 영혼은 제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추리할 수조차 없게 되는...그들은 좋은 일에 맛이나 멋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영혼 복이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54) 지나친 부지런함...이들은 묵상과 추리의 길로만 가려고 한 나머지 본성의 힘을 너무 피로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게으름과 죄 탓으로 이 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성의 밤에서 영성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절대로 묵상이나 추리를 하지 말아야...영혼을 정적 속에다 버려두어야 할 때...다만 할 일이라곤 모든 지식과 사색에서 영혼을 해방시켜서 자유분방하게 만드는 일이나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가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고 다만 하나님 안의 고요하고 사랑 겨운 지경에 만족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맛보고 느끼려는 의지도 욕망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기도할 때...그저 꼭 참고 가만히 있어야...그때는 오직 영의 자유해방이 있을 따름인 까닭...영혼이 마음의 평화와 무위에 있고자 하면서 동시에 어느 작업이나 애착이나 유념에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해져서 감성의 메마름과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57) 관상이란...하나님의 은밀하고 평화롭고 사랑 겨운 내리심이다.

제 11 장. 노래의 셋째 구절을 풀이함: 이 사람의 타오름은...처음에는 못 느끼는 것이 보통...그러나 때로는 원하든 말든 불현 듯 하나님께 대한 어느 그리움이 일어나기도 한다...그리움이 커갈수록...하나님 사랑에 더욱 더 정이 불고 불이 붙게 된다...사랑에 할딱이며 하나님을 그리워한다...관상의 사랑에서 콩팥이 바뀐다. 콩팥이 바뀌었다 함은 감각적 기호의 욕구가 변했다는 것. 이는 곧 감성의 길에서 영성의 길로 옮겨감을 뜻하고 영성의 길이란 바로 메마름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욕구의 중절을 말한다.(59) 좋은 씨고 행운이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 감성의 밤에 두심으로써 감각을 낮은 부분에서 정화시키어 영에 맞추고 순종하고 일치하도록 하시고...하나님과 합일 위하여 영을 순화시키고자 감성을 어둡게 하시고, 추리의 길을 막아서 영성의 밤에다 두시면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체] 대단한 이득을 보게 된다...실상 밤을 타서 지나감을 행운으로 여김도 이 이득 때문인데 영혼은 이 이득 전부를 다음의 시구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61) 좁은 길은 곧 영의 밤...영혼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려면 이 밤에 들어가야 하고, 저 순수한 믿음이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하는 기틀인 것이다.(62)

제 12 장. 이 밤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생기는 이익들: 2,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자...자신들을 알게끔 하시고자 사막에서도 꾸미고 다니던 화사 한 옷과 몸치장을 벗어던지라 하시었다.(64) 모세가 공경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가장 바르고 슬기로움 일...그는...육과 맛의 신발을 벗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을 뼈저리게 느꼈으니 그러한 마음가짐이라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웁은...재 가운데 벗은 몸이 기댈 데 없이 그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아 압박을 당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흠뻑 젖은 데다가 땅은 온통 구

더기쁘게 하셨다.(65) 감성의 맛과 욕구는 비록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일지라도 영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대신 감성의 메마름과 잡도라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성을 밝혀주고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66) 1. 메마른 밤에서 우선 자아 인식이 나온다는 점이고, 2. 마치 바탕이나 되듯이 자아 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이 나온다....성 아우구스티노는..“주여 나를 알게 하소서, 당신을 알리 이다.”하였다...감성의 밤이 메마름과 외로움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빛을 더욱 받는다.(67)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한 준비와 방법이 다했어에게는 영의 기쁨이나 여러 가지 맛이 아니라 오히려 감성면의 메마름과 끊임이나...길 없는 땅이라.(67) 밤의 메마름과 텅 빈에서 영혼이 뽑아내는 것이...영성적 겸손이다...미상불 이다지도 메마르고 비참한 자신을 발견할 때 그전처럼 자기가 남보다 낫 다든가 뛰어난다든가 하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이 자기보다 나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이런 데서 이웃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다만 자기의 비참만을 알고 눈앞에 두고 있으니 남에게 눈을 돌릴 틈도 사이도 없는 것이다...이런 상태가 영성의 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든다.(68)

제 13 장. 이 감성의 밤에서 영혼이 얻는 다른 이익들: 1. 어둡고 메마른 이 밤에서 영혼은 영적 탐욕으로 지니던 불완전을 씻게 된다.(70) 어둠 밤에서 얻는 이익이 불완전에서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훨씬 더 많고 더 나쁜 더러움에서 해방된다...젓통에서 젓을 짜버릇하지 않으면 젓줄이 말라붙는 것과 같이..영혼의 욕구가 말라버리면 이 영의 절제를 통하여 이미 말한 이익보다 훨씬 묘한 이익이 따라오게 된다. 제욕의 불결이 꺼지고 나면 영혼은 영의 평화와 고요 속에 사는 것. 욕정의 지배가 없는 곳에 혼란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4. 둘째 이익이 또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기억으로서, 행여 영성의 길에서 뒷걸음질 칠새 걱정과 무서움이 겸한 생각이다. (71) 군색의 덕이 여기서 닦여진다...항주덕이나 사후덕 그리고 윤리덕을 막론하고 모든 덕이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잘 닦여진다...여태까지 말한 것을 추려보면,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익이 네 가지인데, 1. 평화를 누림, 2. 하나님을 꾸준히 기억하고 두려워 함, 3. 영혼이 맑고 깨끗함, 4. 모든 덕을 닦음이다... 이는 일체의 집착에서 정화됨을 이룬다...세 가지 악습의 불완전은 1. 분노, 2. 질투, 3. 나태인데 그것들 역시 이 욕의 메마름에서 정화되어 영혼은 그에 상반되는 덕을 얻게 된다...이상 열거한 이익들 외에도...메마른 관상을 통해...영의 맛스러움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영의 지견을 자주 내리시고 때로는 아주 미묘한 지견을 내리신다.(73) 끝으로 여기서 영혼의 애착과 감성의 욕구를 정화하는데서 영의 자유를 얻는데 그리는 중에 차차 성령의 열두 열매를 얻게 된다. 역시 여기서 묘하게도 세 원수, 즉 악마와 세속과 유의 손아귀에서 해방이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메마름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다. 그 이유는 맛을 따라서 일하던 그전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 해서 일할 뿐이며, 일의 재미나 맛에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득의의 시절엔 아마도 그러기 일쑤이던 자만자족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혀 자기만족을 지니지 않으니 여기에 기록한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이 덕을 보존하고 키우는 것 이다. 역시 이 메마름이 이이 말한 바와 같이 욕정과 본성에서 오는 객기를 없애준다...이 메마름의 밤에서는 하나님 걱정,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커진다...메마름과 벗은 속에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섬김의 열망뿐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는 것...당신이 즐기시는 제사는 부처진 마음이다...나왔노라는 감성적 욕구와 집착의 굴레와 굴종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알이 없이란 위에서 말한 원수 셋이 나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맛과 욕심이 없으면 원수들이 영혼을 공격할 수 없다...영혼이 꾸준한 끊임으로 기쁨, 아픔, 바람, 무서움의 네 가지 감성을 가라앉히고 끊임없이 메마름으로 본성의 욕구가 감성 안에서와 같이 잠이 들고 작업에 있어 감각과 정신 능력과 의 조화를 높이고 이미 말한 대로, 추리의 활동을 멈추면, 이것이 모두 영혼의 허부 구조 의 거주요, 권속으로서 이를 영혼이 여기서 제 집이라 부르는 것이니, 내 집은 이미 고요 해지고(75)

제 14 장. 첫째 노래의 이 끝 구절을 풀이함: 이미 내 집이 고요해지고...이 밤을 통하여 감성이 끊기고 그 욕

정은 식고 모든 욕이 잠들어 고요해졌다는 말이니, 이때 영혼은 나와서 영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의 길이란 나아가는 사람...조명의 길 혹은 주부적 관상의 길이라고 부른다.(76) 4. 고생과 유혹을 거쳐서 시련과 단련과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지혜로 도달할 수 없다.(77)]

38. 『영혼의 어둔 밤』 발췌. 2. [제 2 편. 영의 밤을 다름: 제 1 장. 영의 어둔 밤을 다루기 시작함. 그 밤이 어느 때에 시작하는지를 말함: 감각의 첫 번째 정화와 밤의 메마름과 고생을 벗어나자 즉시 이 영의 밤에 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오랜 햇수가 걸리기 일쑤여서 그 동안 영혼은 초심자의 영역을 벗어나 나 야간 사람들의 위치에서 공부하는 것이다.(84) 영의 둘째 밤으로 정화된 완전한 이들의 통교에는 그런 활활이나 육체의 고통이 그치고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나 그렇다 해서 감성이 아주 흐려지거나 잃게 되지는 않는다.(85)

제 2 장. 이 나야간 사람들이 지는 다른 불완전에 이어서 말함: 나야간 사람들이 지니는 불완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습성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것이다...두 가지 정화가 서로 틀리는 점은 뿌리와 가지의 차이, 케케묵은 때를 벗기기와 새로운 때짜매기를 지우기와 차이일 것이다.(87) 하나님과의 합일에 다다르려면 우선 정화부터 필요한 것이다...합일에 도달하려면 영의 둘째 밤에 들어야 하니, 여기서는 감성도 영성도 일체의 지각이나 맛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캄캄한 속을 순수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영혼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그러기에 호세아는 진실로 나의 약혼 선물이다 하였으니 이는 곧 믿음으로써 너를 내게 결합시키라는 뜻이다. (88)

제 3 장. 따라오는 장들을 위한 알아두기: 감성의 정화가 제대로 있으면 진실된 영성의 정화가 있는 다음이라야 한다. (89) 감각의 첫째 밤의 개혁과 여기서 나오는 고요를 거쳐 와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성이 영과 제법 일치되어서 정화와 고역을 더욱 힘차게 치렀던 것이다..하나님께서는 묵은인간을 이들에게서 실제로 벗기 시고자 아울러 새 인간, 즉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을 만드시고자 이들의 능력과 애착과 감성을 모두 벗겨버리시고, 지성을 어둡게, 의지를 메마르게, 기억은 텅 비게, 애착은 극도의 불안과 고민거리로 둘러싸이어서, 그전에 영적 보배들에서 느끼던 맛과 감각을 없애주신다.(90)

제 4 장. 첫째 노래와 그 풀이: 어느 어두운 밤에/사랑에 타 할딱이며/좋을 씨고 행운이며/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풀이. 이 노래를 정화와 관상 또는 벗음과 영의 가난으로 알아듣는다면. 일체 내 지각을 던지고 없애고 의지함이 없이 즉 지성의 어두움, 의지의 메마름, 기억의 변민과 고뇌 속을, 위의 자연 능력들에겐 어둔 밤인 순수한 믿음의 어둠 속에 날 던져두고, 의지만이 하나님 사랑에 괴롭고 아프고 답답한 채 나왔노라. 나에게서...감성도 악마도 해살놓지 못하고. 나의 지성은 제게로부터 나와 인간적이고 본성적인 것이 하나님스러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니 이 정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일됨으로써 이제는 본성의 빛과 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합한 하나님의 지혜로 깨친다는 것이다...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된 마음이라 다시는 본성의 힘을 가지고 사랑을 낮게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의 힘과 맘음으로써 하므로 의지는 하나님을 두고 인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마찬가지로 기억 또한 영광의 영원한 상으로 변한 것이다. 결국 묵은 인간의 밤과 정확로 말미암아 영혼의 모든 힘과 뜻이 하나님의 기질과 낙으로 아주 변모해버렸다...어느 어두운 밤에.(93)

제 5 장. 노래의 첫째 구절을 두고 어두운 이 관상이 어찌하여 영혼에게 밤일 뿐 아니라 괴로움과 아픔인가를 밝히기 시작함. 이 어두운 밤이란 영혼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한 작용으로서 영혼을 그 자연적 및 영성적 무지

와 불완전에서 정화시키는 것이다. 의문. 여태까지 영혼을 비춘다, 무지에서 정화시킨다면 그 하나님의 빛을 어찌하여 여기서는 어둠 밤이라 일컫는가?(94) 1. 하나님의 지혜가 아득히 높아 영혼의 역량을 초월하기에 어둠이라 일컫는 것이요, 2. 영혼의 더러움과 낮고 낮음으로서 그러기에 괴롭고 아프고 캄캄하다는 것. 1. 하나님의 일들이란 그 자체가 밝고 환할수록 그만큼 영혼에게는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빛이 밝을수록 올빼미의 눈동자는 더욱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태양을 쏘아볼수록 시각이 약한 탓으로 안충이 흐려져서 어두워지는 것...하나님께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영혼에게 당신이 오묘한 지혜의 이 찬란한 빛을 쏘시면 인간의 이성도 캄캄하게 된다.(95) 캄캄한 관상이 처음에 영혼에게 괴로운 것이 뻘하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부적 관상이 지극히 좋은 뛰어난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이를 받는 영혼은 정화되지 못한 탓으로 지극히 나쁜 비참을 많이 지니는 까닭이니 하나의 주제 안에 상반되는 둘이 융합될 수 없음에서 괴로움과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다. 1. 관상의 빛과 지혜가 매우 밝고 맑은 반면 빛을 받는 영혼은 어둡고 불결하다...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혼도 아프다. 영혼이 제 불결 때문에 격여야 하는 괴로움...영혼에 있어 이것은 참아 견딜 수 없는 슬픔이요, 괴로움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96) 2. 영혼이 그의 자연적 도덕적 영성적 악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신령한 관상이 영혼을 군세게 만들어 휘어잡을 양으로 하나의 폭력을 쓰는 까닭인데 가혹이나 약해서 괴로운 데다가, 더구나 호된 힘이 쏘아붙일 경우이면 거의 실심할 지경에 이른다.(97) 얼마나 영혼이 무르고 더러웠으면 본디 부드럽고 고우시기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손을 여기의 영혼은 되려 거북하고 거슬리게 느끼는가?(98)

제 6 장. 이 밤에서 영혼이 당하는 또 다른 고통: 영혼이 당하는 셋째 고통은 두 극단에서 오는 것으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그것이다. 신적인 극단이란 정화의 관상이고 인간적인 극단이란 영혼의 주제다....영혼이 기다리는 영성의 부활을 위해서는 이 캄캄한 죽음의 뱃속에 있어야 한다.(99) 사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슬픈 고통이 영혼에게 또 없다...주는 나를 깊숙한 구덩이 속에, 어둠 속 심연 속에 두셨나이다. 시 2:4-5.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나님 계신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100)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넷째는...어두운 이 관상의 다른 초월성 즉 그 존엄과 위대성으로 영혼은 이와 맞서는 극단 즉 자기의 기막힌 빈곤과 비참을 통감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화작업을 어두운 관상을 통하여 하신다.(101) 영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애집의 녹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정화하려면, 하나의 자기 부정과 자기 말살이 필요하다.(102)

제 10 장. 하나의 비유로써 이 정화가 근본적으로 설명된다.

하나님의 정화의 빛 사랑겨운 지경이 영혼을 스스로 완전히 합일시키고자 정화시키고 준비시키는 그 방법은 마치 불이 나무를 불태우려가 되게 하는 법과 비슷하다..물질의 불이 목재에 다려질 때에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은 1. 말리기로, 습기를 밖으로 내뿜게 하고, 목재에 배어 있는 수분이 우러나게 한다. 다음에 2. 어둡고 검고 보기 흉한 색깔이 되면서 고약한 냄새까지 나기 마련인데 차차 말라 들어가면서 불이 당겨지고 불과 상극인 모든 어둠과 더러움을 밖으로 몰아낸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3. 밖으로부터 나무를 태워 열을 올리고 다시 이것을 제게로 변화시켜서 불 자체와 같이 아름답게 된다....말라서 마르게 하고, 뜨거워서 뜨겁게 하고, 밝아서 밝게 하여서, 그전보다 훨씬 가벼워지는데 이런 특성과 결과는 목재 안에서 내주는 불의 힘에 의한 것이다. (121)

관상의 사랑의 하나님의 불도 이와 같다. 이 불은 영혼을 제게로 당겨 동화시키기에 앞서 먼저 불과 상극되는 일체의 요소들을 없애준다. 영혼으로 하여금 더러움을 내몰아 검고 어둡게 하여 그전보다 못하듯이,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추하고 지겹게 만들어준다. 이 하나님의 정화가 모든 악과 잡스러운 습기를 제거하는데,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깊이 뿌리를 박은 것들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따라서 그토록 몹쓸 악이 제 안에 있는 줄을 미처 몰랐지만 이제는 내 몰아서 없애려는 판이니 눈앞에 드러나고, 신스러운 관상의 이 어둔 빛에 환히 보여서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므로 하나님께서도 보아주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겨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겨워하시는 자기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첫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영혼에 부딪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겨운 빛과 지혜가 맨 처음 영혼을 정화 준비시키는 바로 그 빛 그 지혜라는 것이니, 나무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나무를 제게 동화시키는 불이 같은 결과를 위하여 맨 처음 제목을 준비시키던 그 불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지 않음을 깨닫는다는 점...고통은 그 지혜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나약과 불완전에서 오는 것.(122) 셋째로..연옥의 영혼들이 고통을 받는 모양. 거기서는 불완전이 타는 재료인 만큼 그것이 없으면 다시 더 탈 것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승에서도 불완전이 다하고 없다면, 영혼의 고통거리도 끝이 나서 기쁨만이 남을 것이다. 넷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이 사랑의 불로 정화에 정화를 거듭할수록 더욱 사랑에 불탄다는 사실이니 흡사 재목이 잘 타게 되어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열도 그만큼 뜨거워지는 것과 같다. 다섯째로...쉬는 동안이 있는 다음에 영혼이 그전보다 훨씬 더 깊고(123) 날카로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보다 더 밖에 있는 불완전이 정화되는 것을 잠깐 보인 다음에, 보다 더 안에 있는 것을 정화시키고 살라 없애려고 사랑의 불이 또 다러지기 때문인데 이때에는 보다 더 그윽하고 까다롭고 영스러운 불완전,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불완전을 사랑의 불이 사들수록 영혼의 아픔은 그만큼 그윽하고 까다롭고 영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이 안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나무속을 아주 점령할 양으로 불은 점점 더 기세를 올리게 되는 법이다. 여섯째는 어쩌하여 일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이 꼭 차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원인을 깨낸다는 점...먼저와 같이 되어가는 일이 잠깐 보인 다음에는 한결 깊숙이 기빠질 것이니 이미 한결 같이 정화가 이루어진 까닭이다. 일곱째로 알 수 있는 것은...어느덧 고생이 다시 오게 될 때에는 아직 그 남아 있는 뿌리를 안 느낄 수 없고 느끼는 날에는 기쁨이 온전할 리 없으니 이제 곧 닥쳐온다 싶은 고생 때문에 겁을 내게 되고 그러하려면 이내 고생은 돌아오게 마련이다.(124) 정화가 더욱더 안으로 들어갈 때면 다시 한 번 모든 보배가 다 없어지듯 그리고 되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 대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 보다 더 깊은 속이 고생을 치르느라 밖에 있는 온갖 보배가 보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제는 영혼의 처절한 상황에서 나와 그 눈물과 그 다행한 특질의 결실을 다루기 시작함이 좋을 것이다...사랑에 타 할딱이며.(125)

제 11 장. 첫째 노래의 둘째 구절을 풀기 시작한다. 위에서 본 준열한 궁박의 결과로 영혼이 하나님 사랑의 격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말한다. 사랑의 불이 피로운 관상의 이 밤에 영혼 안에서 타오른다.. 이 타오름은 영혼의 감성 면에서의 타오름과 비슷하지만, 한편 또 마치 영혼과 육체 혹은 감정과 영성의 차이와 같이 다르니...여기서 영혼은 감각한 궁박 속에서...하나님께 대한 어느 느낌과 깨달음을 가지고 상상하고 날카롭게 하나님 사랑에 호된 상처를 입었구나 하는 것이다. 이때 영혼은 이 영스러운 타오름이 사랑의 열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격렬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위에서 내려진 사랑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그러면서 영혼 안에는 사랑의 격렬한 정이 생긴다.(126) 사랑의 열이라 일컫는 것은... 그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로서 이 사랑이 영혼과 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사랑은 영혼이 천상과 지상 것을 맛볼 수 없도록 모든 욕을 쳐달고 끌어버릴수록 그만큼 마음의 자리는 넓어져서 하나님과 합일하고 그 사랑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이 어두운 정화에서 훌륭하게 이뤄진다. 맛이란 맛을 다 떼고 거두어서 다시는 그 맛대로 즐길 수 없게 만드는 까닭이다. 이런 일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심은 영혼이 오직 당신을 위하여 일체의 낙을 멀리하고 거두어서 하나님 사랑의 세한 합일을 받을 만큼 그만한 힘과 자력을 얻으라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정화의 방법삼아서 이미 합일을 주시기 시작하신다.(127) 첫째 계명은 인간과 그에 딸린 것을 하나님 사랑에서 조금도 거부하거나 배제함이 없이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아해를 사랑하여라.”(신 6:5) 이 하나님 사랑과 불의 접촉이 영을 말리고 욕구에 한껏 불을 질러주는 까닭에 영혼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며 말할 수 없는 갈망을 품고 갖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다. 시. 6:2 “내 영혼이 당신에 목이 말랐었으니 내 영혼은 당신 때문에 죽어가니이다.” 때문에 영혼은 “사랑 타 할딱이며”라고 노래한다. 영혼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나 일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갖은 모양으로 사랑하고 갈망하고 갈망하면서 언제나 어디서고 갖은 모양으로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어느 한 가지에라도 쉴 겨를이 없는 것이니 불탄 상처에서 할딱임을 느끼는 것.(128) “그들을 갈구하는 종처럼, 샅을 고대하는 품팔이꾼처럼.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눠받았네..저녁은 깊어지고, 나는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욥 7:2-4) 영혼은 어둠에까지 아픔에 차있다. 어느 가느다란 빛이나 영의 행복에 대한 털끝만한 기대도 위로도 없이 그저 괴롭고 아프기만 한 것이 여기서 당하는 영혼의 고통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불타는 속에서 영혼이 겪는 번민과 고통이 크고 그것은 또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한데, 1. 영혼이 당장 처해 있는 영스러운 어둠으로서 이 가운데서 영혼은 의혹과 무서움에 시달리고, 2. 영혼을 태워주고 자극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으로 이것은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묘하게 영혼을 놀라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사 26:9절에서는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였는 바, 여기의 밤은 비참이란 뜻으로 밤에서 치르는 고통의 한 양상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이사야는 “아침이 되어 당신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이라 했는데 이는 고통의 둘째 양상이다. 영스러운 애호인 영속에서 사랑의 갈망과 고민을 겪는 것이다....혹시 조여드는 이 어둠의 중량이 없을지라도, 영혼은 자주 고통과 공허와 나락을 느끼게 된다.(129) 그 까닭은 영혼은 그 힘을 제게 들어온 사랑의 어둔 불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혼에 들어오기를 그치자 그 안의 어둠도, 사랑의 힘과 열도 그치는 것이다.(130)

제 12 장. 어찌하여 이 무시무시한 밤이 연옥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천상의 천사들을 청화 조명해주는 그 빛으로 어떻게 지상의 인간들을 비취주시는가를 말함. 마음의 깨끗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기 때문이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복되다고 일컬으신 사람들...이는 곧 사랑에 빠진 사람들 - 행복이란 사랑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131) 이둔 관상은 각 사람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사랑과 지혜를 동시에 주면서 영혼을 비취주고 현자가 자기 체험에서 말했듯이 영혼을 무지에서 정화시켜준다. 4. 똑같은 사랑의 불이 인간을 순화하고 영화하도록 정화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미 정화된 천사들처럼 사랑으로 이뤄지는 합일을 곁에 받아들이기까지는 인간은 여기서 괴롭고 답답한 사랑을 하게 된다. 5. 영의 정화가 시작되는 처음에 신스러운 이 불이 하는 일은 영혼이 나무를 뜨겁게 하기보다는 그저 말리고 준비시키는 것이다...여기서 이성(은)은 어둠을 통하여 한결 정화되므로 때로는 이 신비롭고 사랑겨운 신학이 의지를 불태움과 함께 이성의 다른 능력을 어느 지견과 신스러운 빛을 가지고 비취주면서 다치게 한다. (133)

6. 여기서 서로 합치는 이성(은)의 의지, 이 두 가지 능력의 일치를 상반하는 사랑의 불담은 영혼에게는 여간 큰 부와 낙이 아니니, 그것은 신성(은)의 그 어떤 접촉이며 영혼이 갈망하는 완전한 사랑의 합일의 시초인 까닭이다. 이와 같이 높으나 높은 느낌과 하나님 사랑에의 접촉에 다다르려면 많은 고생을 치러야 하고 정화의 커다란 몫을 차지해야 한다. 7. 하나님께로부터 수동적으로 영(은)이 받는 영적 보배에 있어 의지는 이상의 알아 들음이 없이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의지로 사랑함이 없이도 이성(은)은 잘 알아듣는 것과 같다. (134)

제 13 장 이 관상의 어둠 밤이 영혼 안에 일으키는 다른 맛있는 결과들은...빛이 어둠속에 비치기 때문. 이성(은)과 의지는 두 능력이 합치는 때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성이 말끔히 씻겨졌으면 그럴수록 더욱 완전하게 치밀하다.(135) 의지는 자유롭고 이 사랑의 불담은 의지의 행위라기보다 차라리 사랑의 열이다...이 사랑의 불담은 마음에 있다. 즉 의지의 욕구를 불사른다.(136) 5. 영의 밤이 시작할 때...사랑의 불담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당신께 대한 지극한 경애심을 영혼에게 내리신다. 그러므로...이 밤의 고뇌 중에 가장 빠져리

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을 잃지 않았는가 당신께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밤의 시초부터 영혼은 경애이건 불탐이 건 사랑의 할딱임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다.(137) 6. 사랑의 도취요 대담성...그 어떠한 환경도 향액을 들고 주님을 발라드리고자 새벽길을 떠나 던 그를 막지 못하였다. 7. 사랑하는 사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줄로만 안다.(138) 9. 진실한 사랑은 힘을 주는 것, 사랑의 선에 자기를 완성하고자 그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똑같이 되고 합쳐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이다.(139) 10. 하나님의 빛이 항상 영혼을 위하는 빛이라면 빛을 맞자마자 영혼이 밝아지지를 않고 도리 어 어둠과 악만 생기느냐. 하나님 빛이 영혼에 들이칠 때 느껴지는 어둠과 나머지 악은 빛 이 아닌 영혼에게서 오는 것으로 빛은 오히려 영혼을 비추어서 영혼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140) 11. 초자연의 빛으로 이성을 비취사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과 합하여 하나님에서 이성이 되는 것, 의지가 하나님 사랑의 의지로 변하여 이미 하나님 뜻 아닌 뜻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므로써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합일함이며 기억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애호와 욕구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 신سر롭게 변화한다. (141)

제 14 장. 첫째 노래의 마지막 셋째 구절을 놓고 풀이한다. 1. “줄을 씨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142)...모든 능력이 내리심을 받아 가지려면 수동적이어야 하지 거기다가 제 스스로의 저 열한 작업이나 취향을 개재시켜서는 아니 된다.(143) 둘째 노래. 변장한 몸 감감한 속을/ 비밀 총대로 든든하이 / 감감한 속을 꼭꼭 숨어/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제 15장. 둘째 노래를 두고 설명한다. 1. 영혼은 이 밤의 어둠에서 차라리 자기를 얻은 것이다...이 정화의 밤에 있어 영혼의 욕구와 애호와 열정 등이 이미 잠들고 억제되고 꺼졌기에 더욱 그러하니 만약 이런 것들이 잠들지 않고 생생했다면 영혼의 탈출을 허락지 않았을 것이다.(146)

제 16 장. 영혼이 감감한 속을 어떻게 든든하게 걷는가를 설명함: 3. 영혼의 멸망은 다만 그 자신에게서 오는 것..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까닭이다.(149) 4. 묵은 인간이 먼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150) 7. 아! 영스러운 영혼아, 네 욕구가 어두워지고 네 애호가 메말라 죄어지고 네 능력들이 어떠한 마음공부도 할 수 없으리만큼 무능한 때가 있거든 그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행복으로 알라.(151) 9. 고난의 길은 기쁨과 일함의 길보다 훨씬 든든하고 보람이 있다. 1. 고난을 당함에는 하나님의 힘이 보태지지만 스스로 하는 일과 기쁨에는 영혼이 제 약함과 불완전을 부리는 것이요.(152) 2. 고난을 당함으로써 덕을 닦고 얻을 수 있으며 영혼은 정화되고 더욱 조심성과 지혜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10.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약한 탓으로 감감한 어둠을 더 느끼고 더 깊어지는 것, 태양에 바짝 가까이 하는 자가 제 논의 약함과 부정 탓으로, 엄청난 빛을 감당 못하여 아찔 감감해지는 것과 같다. 하물며 무한량한 하나님의 영스러운 빛은 인간 자연 본성의 이성을 초월하여 가까이 할수록 장님이 되고 어두워지는 것이다. (155) 12. 보다 더 밝고 참된 것이 우리에게겐 보다 더 어둡고 의아스럽고...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피하게 되고...그러하여 보다 더 빛나고 우리 눈에 차는 것을 열싸안고 그 뒤를 따라가나, 그것은 우리에게 보다 더 해로운 것, 갈수록 우리를 거꾸러지게 만들 뿐이니 인간은 얼마만한 위험과 공포 속에 사는 것인가, 인도하라고 타고난 제 눈의 광명 자 체마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제가 먼저 흐려지고 글러지니! 혹시 나아갈 길을 제대로 알려 한다면 두 눈을 다 감아야. 그리고 원수인 집안 하인들, 즉 감각 및 능력에서 해방이 되려 면 감감한 속을 든든히 가야 하단니!(154) 14.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주시는 어둠과, 쓰겁고, 검은 물의 힘인데 어두워도 결국 물은 물이기 때문에 비록 어둡고 괴롭기는 해도 알맞추 영혼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힘차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155)

제 17 장. 어둔 관상이 은밀한 까닭을 밝힘. 비밀과 사다리. 영혼이 사랑의 합일로 거저 가는 어둔 관상. 첫째 이 감감한 관상을 비밀이라 부른다. 신학자들은 은밀한 지혜라 한다. (157) 비밀이라 일컫는 이유는...영혼 안에 일으키는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지혜는 언제나 비밀스러울 뿐 말로 다하지 못할 것이니, 이 마음의 지혜가 매우 홀지고 공변되고 영광스러워서 어떠한 감각의 영상을 입고 이성 안에 들어오지 않은 까닭이니, 감각과 상상력은 영혼이 비록 희한한 이 지혜를 깨닫고 맞볼지라도, 이에 대한 이치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하나님의 언어는 영혼에게 가장 내밀하고 영스러워서 온갖 감각을 초월하므로 내외 감각의 모든 조화와 능력을 중절 및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다.(158)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와 말씀하실 때 아 아 아 라고 밖에 말할 줄 몰랐다. 내적 무능력 즉 상상의 내적 감각의 무능력 및 이에 관한 외적 무능력을 모세가 보인 것은 가시덤불 안에 계시던 하나님 앞에서였다....그에게는 상상력이라 하나님 안에서 깨친 무엇을 구상함에 전혀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표현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능력마저 없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관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즉 순수 영이 순수 영에게 하시는 언어인 만큼 영 이하의 모든 것, 즉 감각 같은 것들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이런 것들에는 비밀이요, 모르는 것이요, 말할 수 없는 것, 보지 못했기에 생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159) 8. 영혼을 지혜로 이끌어주는 이 관상이 비밀스런 지혜이다.(162)

제 18 장. 어찌하여 이 비밀스런 지혜가 또한 사다리인가를 밝힘: 1. 어찌하여 이 비밀스런 지혜가 또한 사다리인가?...첫째 사다리로 올라가고 또 성안에 있는 재산과 보배 등을 얻는 것처럼 이 비밀의 관상을 통하여 영혼이 천상의 재보를 얻고 알고 차지하는 데로 올라간다...여기 하나님은 시온성의 보배이시고 시온은 곧 천국이다. 2. 또 사다리는 오름과 내림의 층계가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의 관상도 영혼을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고 동시에 영혼을 낮추기 때문에 이를 사다리라 이를 수 있다. 사실 하나님과의 사귀이 진짜라면 그 특성이 영혼을 동시에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163) 이 길에 있어서 낮춤은 곧 높임이요, 높임은 곧 낮춤이라. 4. 완덕의 상태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없애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는 있을 수 없으므로 영혼은 우선 이쪽저쪽을 다 공부하여야 한다. (164) 5. 관상이란 사랑의 지식, 하나님께 내리신 사랑 겨운 지견으로서 영혼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한 층 한 층 올라가기까지 영혼을 비취주며 사랑에 불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영혼을 하나님께 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하는 까닭이다...이 사랑의 사다리는 하나님만이 재시고 다시는, 그토록 비밀스러운 만큼 그 자체만 가지고 이를 알기란 자연의 길로는 절대 불가능한 까닭이다.(165)

제 19 장 성베르나르도와 성토마스를 따라 하나님 사랑의 신비로운 사다리의 열 층계를 풀어나간다.
 첫째 다섯 층을 다룬다. 1.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랑의 사다리 층이 열 개인데 그 사랑의 첫 층은 영혼을 좋아 병들게 하는 것...님 그러다 나는 병들었다... 이 병은 죽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 이 병중에 영혼을 죄에 약하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생기를 잃고 오직 하나님을 위 한 것, 마치 이를 뒷받침 하듯 다윗이 “백이 다 풀려버린 영혼이되다.” 하였다. (166) 영혼 이 관상적 정확의 이 층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모든 일에 맛과 의지와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없고 영혼은 무아임을 발견한다. 2. 둘째 층계는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167) 3. 셋째 층은 영혼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하고 지치지 않도록 열을 안겨준다...영혼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대단하기에 당신을 위하는 일이 작음을 몹시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것이니, 차라리 천만번 당신을 위해 자기를 파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 다...a. 다른 모든 이에게 비겨 자기가 가장 나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b. 하나님을 위하 여 할 일이 많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모자람과 흠뿐이라. 이렇듯 높으신 주님께 해드리는 일이 너무나 하잘 것 없음에 모든 것에서 부끄럼과 쓰라림을 발견하는 것이다.(168) 이 셋째 층에서 영혼은 허영과 자만과 남 시비함과는 먼 거리에 있다. 4. 사랑의 사다리의 넷째 층은 사랑하는 님 때문에 일상 괴로우면서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이우구스피노의 말씀대로 아무리 크

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도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해내는 까닭이다...비록 큰 힘이 들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당신께 받은 은혜대로 또 당신께 합당한 대로 섬겨드릴까 하는 데에 온 마음을 쓴다.(169) 5. 사랑의 다섯째 층은 영혼이 하나님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고 열망하게 한다...시 83:3. “주님 계시는 곳이 그리워 내 영혼 애타우다 지치나이다.”(170)

제 20 장 사랑의 다른 다섯 층을 다룬다. 여섯째 층은 영혼이 재빠르게 하나님께로 내닫게 하고 당신 안에서 많은 접촉을 가지게 해서 영혼은 거침없이 희망을 가지고 내달는다. 사. 40:31.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 하리라” 시 41:2.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나님을 그리나이다.” 시 118:32. “주께서 이 마음을 넓혀주시면, 당신의 계명 길을 달려가리이다.”(172) 일곱째 층은 영혼을 매우 대담하게 만든다. 여기의 사랑은 기다림에 판단이 필요 없고, 물러섬에 심사숙고가 쓸데없으며, 역제함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으니, 이미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를 매우 담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시 36:4. “네 즐거움일랑 주님께 두라. 네 마음이 구하는 바를 당신이 주시리라.”..항상 어느 층에서나 겸손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법이다. 사랑의 여덟째 층은 영혼이 붙들여 잡고 놓지 않게 하는 것, 새색시는 이런 수법으로 “내 영혼의 사랑, 님을 만나 뵙니다 한번 분든 당신을 놓칠 리 없네.”(아가3:4)(173) 하지만 영혼이 이 층에 머무는 동안은 아주 짧다. 아홉째 층은 벌써 완전한 사람들의 층. 영혼을 맛깔스럽게 불태워준다. 이 층은 완전한 이들의 층으로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맛지게 타오르고 있다. 이 맛깔스럽고 무르녹는 정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뤄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그레고리오는 성령이 눈에 띄게 사도들 위해 내려오셨을 때 사도들이 속으로 맛지게 타더라고 말씀하셨다. 열째 층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한다. 영혼이 이승에서 아홉째 층에 도달하면 이내 하나님의 밝은 직관을 직접 가지게 되므로 욕을 떠나는 까닭이다. 이런 영혼은 그 수가 적은데 이미 사랑으로 정화가 말끔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옥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마. 5:8. 복되려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뵈게 되리니.(174) 여기서 영혼이 노래하는 비밀 사다리지만 실상 위쪽에 있는 이 층계에 서는 사다리가 그다지 비밀스럽지 않은 이유는 영혼 안에 일어나는 커다란 결과들로 해서 사랑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다....하나님이 계시는 사다리 맨 위, 즉 명백한 직관의 이 마지막 층에서는 이미 영혼에게 숨겨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까닭이다...이와 같이 이 신비 신학, 그리고 비밀스런 사랑을 가지고 영혼은 자기와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께 올라간다. 사랑이란 불과 같은 것, 불은 항상 제 범위의 중심으로 타들어가면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기 때문이다.(175)

제 21 장. “변장한 몸”의 낱말을 풀고 이 밤에 영혼이 변장하는 그 빛깔들을 말함: “변장한 몸” 무엇 때문에 영혼이 “변장한 몸”으로 이 “비밀 사다리”로 나가는가? 변장을 한다 함은 일상 자기가 지니고 있던 몸이나 모양새와는 달리 자기를 분장하고 감추인데, 혹은 색다른 옷과 모양새로 마음속에 품은 것을 드러내어 사랑하는 이의 총애와 마음을 얻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와 맞서는 자에게 몸을 숨겨서 자기의 일을 더 잘 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옷과 모양새는 마음의 정을 더 잘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이라야 하고, 또 한편 맞서는 자 앞에 자기를 감쪽같이 감추 수 있어야 한다. (176) 세 가지 빛깔, 희고, 푸르고 붉은 옷 -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로써 영혼은 사랑하는 이의 총애와 마음을 살 뿐 아니라 그 세 원수를 막고 아주 든든하게 갈 수 있으니, 믿음은 더할 나위 없이 새하얀 속옷으로서 온갖 이성의 시력을 눈부시게 하기 때문이다...믿음이 있으면 다른 모든 덕 보다도 가장 힘세고 교활한 원수 - 악마를 가장 잘 막아내는 것이다. 성베드로는 악마에서의 행방이 믿음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해서서 “믿음으로 굳어져서 그에게 대항하시오”라고 말씀하셨다...믿음은 다른 모든 덕 - 옷들이 바탕이요, 비롯함이다. 이것 없이는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의 새 하얀 입을 입을 때가 영혼이 어둠과 내적 궁박 속을 가면서 이 어둔 밤에서 나왔

을 때였다. 이때 이성은 아무런 빛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177)

둘째 빛깔 푸른 저고리. 바람의 덕을 상징...이 푸름은 영원한 생명의 일에 대한 생기와 용기와 고결을 얼마나 영혼에게 주는지 바라는지 저기에 비기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듯이 보이는 까닭이다. 이렇듯 영혼은 푸른 옷과 변장을 가지고 둘째 원수 - 세속이 있거나 말거나 아랑곳 없이 안전한 길을 간다.(178)

영혼을 움직이고 이기게 하는 것이 굳센 바람이다. 영혼은 이 바람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앞에서 말한 그 비밀스럽게 어둔 밤을 거쳐간다.

영혼은 셋째 빛깔 아주 새빨간 옷을 걸친다.(179) 사랑을 상징. 이것이 다른 두 가지 빛깔을 아리답게 해줄뿐 아니라 영혼을 높여서 하나님 대전에 매우 아름답고 귀엽게 만든다....이 애덕의 옷은 이미 사랑의 옷으로서님께 대한 사랑을 뜨겁게 해주고 영혼은 셋째 원수인 욕에서 스스로를 감싸고 덮을 뿐 아니라 나머지 덕에도 힘을 돋우어서 생기와 끈기로 영혼을 돕게 하고 두 가지 덕으로 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우미 단아함을 준다.

세 가지 빛깔이 영혼의 세 능력, 이성과 기억과 의지로서 하나님과 합일하는 데 가장 알맞은 준비다. 믿음으로 말하면 이성이 모든 자연의 지식을 비우고 어둡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결합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바람으로 말하면 기억을 비워서 모든 피조물을 지니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 있게 하니 성 바울로의 말씀대로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180) 사랑은 의지의 욕구와 애호를 하나님 아닌 일체에서 비우고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 두니 이렇듯 이 덕은 이 능력을 준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결합해 준다. 이 세 가지 덕의 옷을 입고 참되이 가는 것이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님과 합일하는 완전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다.(181)

제 25 장. 셋째 노래 풀이. 상서로운 야밤중에 날 불이 없는 은밀한 속에 빛도 없이 길잡이 없이 나도 아무것도 못 보았노라 마음에 속 타는 불빛밖엔. 2. 감성의 복된 밤...감성에 달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3. 영혼의 둘째 특성은...모든 능력이 감감한 속에 있으므로 영혼은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4. 셋째 특성은 영혼이 비록 이성의 어느 특수한 안엔 빛을 빌리지 않고, 이 드높은 길에 저 이상의 빛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어느 밖엔 빛을 힘입지 않더라도...그래도 홀로 사랑만 이 그때에 불타고 있어 마음을 부추키어 사랑하는님을 찾게 하니, 사랑이야말로 그때 영혼을 움직이고 인도하는 것, 그 사랑이 영혼을 제 하나님께 고요의 길을 거쳐 날아가게 한다. (195)]

39. 두서없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토의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1. 용은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고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위는 경계가 없는 자기가 자리합니다. 용의 자기 개념은 동양의 원기 혹은 기독교의 정의 될 수 없는 하나님에 상응하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영역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영역이 억압된 개인의 무의식 영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용의 경우는 개인을 넘는 집단 무의식 뿐 아니라 경계를 넘는 자기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성의 구조를 갖습니다. 프로이트가 지향한 건강한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느라 사용했던 에너지를 회복하여 현실 안에서 욕망이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자아를 건강하게 강화하여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유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의 경우는 존재하는 것들이 대극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극의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실현하는 개성화 과정을 인간의 삶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십자가

의 요한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인간 안에 있는 감각적인 힘을 제거하는 정화 과정을 거쳐 온전한 하나님과의 합일을 이루는 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인간의 애욕은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합니다.

40. 관상적 영성이 하나님과의 합일을 통해 하나님 편으로의 일관된 질서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정신분석은 증상을 가진 병리적인 인간의 내적 세계 곧 무의식의 세계로의 탐사를 통해 무의식의 왜곡된 환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은 자기를 개인의 무의식적 층위와 의식의 층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대극의 합일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신비신학의 관상적 영성이나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이나 내적 세계로 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원초적 근원의 자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이 관상적 영성은 분심이나 인간의 애욕을 흘려 보내거나 제거하는데 집중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힘을 내려놓고 상징 언어 너머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임재에 들어 하나님 화 되는데 집중한다면,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은 무의식적 환상의 교정을 통해 현세에 분리되고 독립된 자유로운 인간을 회복하고 개성화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시하는 영적 여정에서 어둔 밤은 어둠으로 어둠을 초극하는 과정이라면, 정신분석은 어둠(무의식)에 들어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역사 이전의 무의식의 세계를 풀어주어 건강한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융의 경우는 어둠을 빛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통합되어야 할 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융은 현대의 위기가 서방 기독교가 어둠을 통합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도의 여정에서 우리는 상징 언어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분심을 흘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심은 정신분석이나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가 됩니다. 흘려 보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하자원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떠오르는 분심은 이전의 유아기적 경험과 관계됩니다. 이 분심들을 탐구하고 탐험함으로써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왜곡시킨 영역을 회복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감각과 육체는 거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은 영적 세계에 있어 육체와 감각의 세계가 비로소 더욱 본래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제시합니다. 그러나 궁극은 나무가 불을 만났을 때 나무는 없어지고 나무가 불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실적 세계 속에서 구현하기에는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이상으로 삼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관상기도를 통해 일반적 삶에 많은 유익과 건강한 자기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관상적 영성의 유익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관상적 영성이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에서 추구하

는 무의식의 정확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2. 그 해법으로 정신분석가 알프레드 비온은 궁극 O를 제시하며 분석 기법의 새 기원을 열고 있습니다. 비온은 과학적 심성과 자세를 견지하는 정신분석가입니다. 그가 말하는 최고의 분석은 분석가와 내담자가 서로를 통해 자기의 궁극적 영역 곧 O를 만나는 것인데, 이는 너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궁극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너는 나를 통해 너의 진정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43.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십자가의 요한이 나를 자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각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각이 궁극은 나를 자각하는 것이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신세계의 병리를 치료하려는 정신분석이든 인간의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분석심리학이든 하나님과 합일을 지향하는 신비신학의 관상 영성이든 모두 무의식을 정확하는 공통된 과제를 수행합니다. 물론 그 범주가 다르고 범주의 차이는 서로에게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범주의 차이와 관련해 프로이트는 삶의 충동과 죽음 충동을 제시하며 인간의 정신세계의 추동을 설명합니다. 죽음 충동이란 신체적으로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사라지는 것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열반에 이르는 안정을 추구하는 충동입니다. 후기 프로이트는 이 죽음 충동이 생명 충동보다 강하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이 두 충동은 요한에게는 능동과 수동이란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합일은 인간의 편에서는 능동을 내려놓는 것이고 생명 충동을 제하는 것입니다. 향후 정신분석에서 죽음충동을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영역에서도 수동적인 반복 혹은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수동성 혹은 죽음 충동이 갖는 순기능적인 차원을 살피는 것은 기독교 영성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금 리콴르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범주적 갈등을 순환시킴으로써 우리를 더욱 알아가고 진정한 자기를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적 존재로서 해석학적 존재이다. 그러나 언어는 해석을 통해 경험의 세계로 신비적 합일의 세계로 향해야 합니다. 경험 없이 변화 없고 변화 없이 구원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있어 감정과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어 정서를 통해 사고가 탄생합니다. 정신분석은 성격의 변형을 추구하고 분석심리학은 자기로의 실현을 추구하며, 관상적 영성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모두가 우리를 변화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도 변화의 과정에서 만난 영적 수행이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 II. 창조물 묵상을 통한 영성형성

창조세계를 통한 묵상

- 양재훈 목사 -

왜?

현대인들은 늘 바쁜 일상에 몰두하여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겨우 채비를 하고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책상 위로 한가득 쏟아지는 업무, 밤새 밀려들어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메일들. 하루 종일 시달리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어 밤길을 헤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종종 집에 돌아와서도 일은 이어지고, 다 마치지 못한 일에 대한 걱정을 안고 쓰러지듯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루가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은 컴퓨터 모니터에 하루 종일 붙어있고, 우리의 귀는 전화기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길가에 핀 잡초나 이리저리 채이는 돌맹이, 길가에 심겨진 나무에게 눈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소리 대신 나뭇잎 바람에 쏠리는 소리나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소리, 물소리, 우뚝 선 나무와 울창한 숲, 푸르른 바다와 하늘에 흐르는 구름, 빨강계 피어난 꽃내음,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은 차갑고 딱딱하고 시끄러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느껴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총의 수단들 중에 하나일 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과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준비물 : 간단한 필기도구와 목상노트(메모지)

1. 눈과 귀를 돌리십시오.

늘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 끊임없이 우리 귀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어폰 등 모든 현대 문명의 생산품들을 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무, 풀, 꽃, 구름, 바람 소리, 흙, 벌레, 새소리, 돌맹이, 물, 하늘, 별, 달, 노을, 산, 숲 등이 있습니다.

2.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자동차나 기계 등의 소음, 사람들의 분주한 소리 등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리에서 잠시 떨어져서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인간이 만든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3. 피조물들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위에서 예를 들어 소개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건이 안 되거나 주변에서 그런 자연물을 접하기 어렵다면 화분에 심겨진 화초라든지 밖에서 구해 온 돌맹이나 나뭇가지 등을 바라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최소한의 여건조차도 여의치 않을 때. [온라인을 통한 목상]

최근 코로나 사태 등의 상황으로 인해 혹시 주변에서조차 그런 자연물들을 구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링크

<https://news.v.daum.net/v/20200921130900691?fbclid=IwAR0x4qHAtDA1YFRusLYj1YLDqCJmPDAEiAYHWNW2UC2nBVjlp7LI2RmFuAU>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3665&fbclid=IwAR3mgWMKwYqyeFKCNpAw3WAVV_T2uljyXkigvwyMbox8njWWre3-oYFLSOk

<https://youtu.be/H-SJ3eKdhSA>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4285585>

5. 선택한 피조물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25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열어서 여러분이 선택한 피조물을 느껴봅니다.

- (1) 선택한 피조물을 자세히 관찰하거나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 봅니다. (5분)
- (2) 피조물 관찰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발견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글이나 그림으로 적어봅니다. (5분)
- (3) 다시금 피조물을 바라보거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봅니다. (5분)
- (4)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속삭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을 편지나 그림, 시나 기도문 등의 형식으로 적어봅니다. (10분)

6. 그룹 나눔 (20분)

개인적 묵상을 넘어서 그룹으로 할 경우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나눌 때에는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룹은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 서로 돌아가면서 나눕니다.

가) 사회자/인도자의 주의사항

- (1) 사회 역할 : 모임을 주도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2) 시간 조정자(Time Keeper) :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가 골고루 발표를 하도록 시간을 조정합니다. 너무 길게 말하는 사람은 민망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절하게 끊어야 하고, 발표를 주저하는 수줍은 사람은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 (3) 발표 순서 : 자발적 발표가 좋으나, 이것이 어려우면 사회자가 지목하여 권유할 수 있습니다.
- (4) 정리 역할 : 발표가 다 끝나면 간략하게 모임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길게 기도하거나 마치 훈계하듯이 교훈적인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 발표자 주의사항

(1) 시간 준수 :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가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준수합니다.

(2) 즉흥적 발표 자제 : 마음에 닿는 대로 그냥 말하기 보다는 자신이 기록한 목상노트를 읽도록 합니다.

(3) 표현의 절제 : 부적절한 용어, 너무 과장된 표현, 너무 빠른 속도나 너무 크거나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마음의 절제 : 너무 수다스럽거나 호들갑 떨듯이, 혹은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발표하지 않도록 마음을 평안히 하여 발표합니다.

총 진행시간 (50분)

1) 안내 및 피조물 선택 : 5분

2) 목상 : 25분

3) 발표(선택) : 20분

Session Ⅲ. 웨슬리언 의식 성찰

웨슬리의 의식 성찰 질문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 하는 기도

- 서영석 목사-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기도의 태도를 지도해 주는 영성지도 사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습니다. 일찍이 동방정교회의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Evagrius Ponticus)는 기도란 순수한 지성의 활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자는 욕심이나 잡념 없이 순수한 사고만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지요. 내면의 심리적 성찰에 탁월했던 그는 인간 내면을 혼란스럽게 하는 8가지 죄악의 목록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식욕, 육욕, 탐욕, 노염, 낙담, 게으름, 자만, 그리고 교만인데 이것은 후에 그의 제자였던 존 카씨안(John Cassian)에 의해 서방교회에 전파되어 가톨릭 교회에서 일곱 가지 죄악의 목록으로 정착되게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의식 성찰 기도를 개발하고 소개한 로올라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Loyol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기독교적 삶을 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자가 자신의 삶 특별히 자신의 의식을 늘 성찰해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러한 훈련을 위한 영신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유명한 의식 성찰 기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웨슬리도 의식을 성찰하는 삶을 강조하였는데 내면을 성찰하는 질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반복하는 질문들과 매일 저녁 요일별로 다른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의식 성찰을 실천했는데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질문

1.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2. 어제 저녁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신을 살펴보았는가?
3.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하며, 나의 소명에 충실할 결심이 되어 있는가?

일요일 저녁에 하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질문

1.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자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오늘 가진 적이 있는가?
2.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랑을 느끼며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날이 되도록 힘썼는가?
3. 기도와 묵상, 그리고 책을 읽는 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였는가?

월요일 저녁에 하는 “이웃 사랑”에 관한 질문

1.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있었는가?
2. 나는 이웃과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였는가?
3. 나는 이웃의 부족함을 분노가 아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 들였는가?
4. 좋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가능성도 없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았는가?
5.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

화요일 저녁에 하는 “겸손”에 관한 질문

1. 나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했는가?
2. 오늘 하루 중에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죄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따로 가졌는가?
3.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선행을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로 돌린 적이 있는가?
4. 사람들로 부터 칭찬 받을 목적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일을 한 적이 있는가?
5. 나는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고 있는가?
6. 사람들로 부터 칭찬 받는 것을 즐겨 하는가?
7.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였는가?
8.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한 적이 있는가?
9.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가?
10. 온유함으로 일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임무를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조소를 받은 적이 있는가?

11.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첫째로, 내 자신이 실망하지 않도록, 둘째로,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도록, 셋째로, 그것을 통하여 나의 교만함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하는 “자기부정”에 관한 질문¹⁾

1. 단순히 어떤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한 적이 있는가?
2. 감정이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였는가?
3.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금욕의 수단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용하였는가?
4.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 낸 적이 있는가?
5. 나의 의사를 반대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따라 본 적이 있는가?
6.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죄를 보다 실감 있게 느끼고 나의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시간을 가졌는가?

목요일 저녁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유함”에 관한 질문²⁾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는가?
2. 내 자신이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였는가?
3.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일들을 한 후에, 미래의 모든 일을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는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거기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맡겨 버린 나의 육체, 영혼, 친구, 명예, 그리고 재산을 다시 찾자 하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는가?
5. 나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즐겁고, 온유하며, 예의 바르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6. 어떤 일에 대해서, 특히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엄한 모습을 하거나 강한 어조와 몸짓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토요일 저녁에 하는 “감사”에 관한 질문

-
- 1) 웨슬리는 수요일과 금요일을 “금욕”에 대한 질문으로 제목을 붙였으나 현대인들에게는 자기부정이 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 웨슬리는 목요일에 하는 질문을 “자기부정과 온유함”에 대한 질문으로 제목을 붙였으나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온유함”이 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 지난주간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시간을 가졌는가?
2. 하나님의 축복에 보다 민감하기 위해서 그의 축복을 받은 일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3.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뜻을 깨닫고 있는가?

웨슬리의 의식성찰 질문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매뉴얼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웨슬리언 의식성찰 기도

개신교의 가장 탁월했던 요한 웨슬리는 매일 자신의 의식을 성찰하는 질문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했던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지를 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간구하는 기도를 1분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개의 질문 가운데 2개를 정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지 묵상하시고 간단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메모를 가지고 그룹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는 “이웃 사랑”에 관한 질문

1. 단순히 어떤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한 적이 있는가?
2. 감정이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였는가?
3.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금욕의 수단들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용하였는가?
4.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어 낸 적이 있는가?
5. 나의 의사를 반대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 따라 본 적이 있는가?
6.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죄를 보다 실감 있게 느끼고 나의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시간을 가졌는가?

Session IV.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통한 말씀 묵상, 침묵기도

- 김수천 목사 -

“우리는 하루에 실제로 오만가지 이상을 생각한다.”라고 영국의 통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가지나 생각하며 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생각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방 가톨릭교회의 영성가들이 개발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라는 의미로 성경을 읽고 드리는 침묵 기도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거룩한 일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6세기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기도법으로 사용되었는데 베네딕트는 일찍이 존 카씨안으로부터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접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기도란 순수한 지성의 활동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잡념 없이 순수한 사고의 활동만 일어나는 상태가 깊은 기도의 일차적 목표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구약의 신자들이 실천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으로 유명한데 전체 주제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나아가 율조리는 삶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영성훈련을 “율법 신비주의”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렉시오 디비나는 12세기에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9대 원장이었던 귀고 2세에 의하여 오늘날의 4단계의 관상 기도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네 단계는 첫째, 읽기(lectio), 둘째, 묵상하기(meditatio), 셋째, 구송기도 하기(oratio), 넷째, 관상기도 하기(contemplatio)입니다. 여기서 구송 기도하기는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관상하기는 묵상한 본문을 토대로 침묵 속에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관상(觀想)을 의미하는 “contemplatio”는 “함께”를 의미하는 “con”과 “성소”를 의미하는 “temple”의 결합어입니다. 성소는 물리적 성소도 의미하지만 여기

서는 성령이 계시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생각이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지요.

렉시오 디비나를 응용한 침묵 기도는 개신교의 QT와 많이 유사하기에 접목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렉시오 디비나는 적용 대신 머무름을 강조한다면 QT는 적용을 더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QT 하는 신자들은 계획한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주변의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 출신이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 방법을 기도하기(ortio), 묵상하기(meditatio), 적용하기(tentatio)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tentatio란 노력 또는 시도라고도 번역되는데 적용과 유사한 것입니다. 영성이란 모름지기 세상에서 증명되어야 하기에 루터의 착안은 탁월한 것이지요.

하지만 머무름 없이 과연 적용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그 대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강조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먼저 거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줄기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응용한 말씀 묵상 침묵기도 매뉴얼

첫째, 본문을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으며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다.

둘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셋째, 상상력을 동원해 본문으로 들어가 본문을 다시 천천히 속으로 두 번 읽는다. 이때 특별한 단어나 구절(레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갈망한다.

넷째, 감동을 받은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머문다.

다섯째,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상상으로 본문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읽으며 묵상한다.

여섯째, 생각이 잘 집중되면 감동을 받은 말씀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본다.

기도를 위한 본문의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파송. 성찬식

I.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1. 만남

집례자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목사님께도 함께, 형제 자매께도 함께 [서로 목례]

집례자 : 그분이 말씀하시길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회 중 :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2. 예배로 부름

집례자 :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시 98:1)

회 중 :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 오늘의 기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경배 찬송 : 다같이

II. 말씀과 응답

5. 성경 봉독 / 설교

본문 : 막 12:30~32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목 : 감리교도의 특징 (The Character of Methodist) 1742년. John Wesley

III. 성찬

6. 성찬으로 초대

집례자 : 성찬을 받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향해 목사로 말하게 하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을
이 성찬상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겸손히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7. 회개 / 위로의 말씀

목사가 대표로 혹은 각자 혹은 회중 중에 대표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한다.

기도가 끝난 후 목사는 아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한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
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
를 위하심이라(요일 2:1, 2)

8. 평화

집례자 : 주의 상에 나가기 전 서로에게 평화를 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서로 목례. 혹은 서로를 향해 축복송을 불러준다]

기도 초대

집례자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목사님께도 함께, 형제 자매께도 함께[서로 목례한다]

집례자 :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

회 중 : 저희의 마음을 높이 드립니다

집례자 :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기도

회 중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주님,
거룩한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바르고
마땅하며 은혜 입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상투스

다같이 : 따라서 천사들과 대천사 그리고 하늘의 모든 거룩한 회중과 더불어 저희들
이렇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사6:3).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받으소서.
오 주님 높은 곳에서 당신께 영광(마21:9, 막11:9-10)

성찬제정사

집례자 : [두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기도하는 자세로]

아버지! 아들에게서는 시험과 유혹 중에서 높은 부름을 향해 분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이 성찬을 제정하셨나이다.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그분은 떡과 잔을 들어 아버지 당신께 감사기도 하시고 자신의 영원히 효험있는 대속의 죽음을 기억의 표로 아버지께 보여드리라 하셨나이다. 또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자신과 하나되라 하셨나이다.

기억의 봉헌

집례자 : [하나님을 향해 떡과 포도주를 높이 들어 보여드리며]

이제 복된 제정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아버지께 아들의 죽음을 들어 간구합니다. “보소서! 아들의 죽음의 표이옵나이다” 당신 우편에서 드러지는 아들의 영원한 대속의 희생을 보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떡과 포도주를 내려 놓는다]

회 중 : 아멘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 [떡과 포도주 위에 두 손을 펼친다]

또한 성령을 저희와 이 떡과 포도주에 내려 주옵소서. 먹고 마실 때 저희들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저희 안에 저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회 중 : 아멘 [두 손을 내린다]

10. 분급

[음악적 배경을 둔다. 회중 찬송, 찬양대, 악기연주 등]

[다같이 떡을 든다. 집례자가 회중을 향해 찢으며].

집례자 : 주님의 몸! 여러분을 위해 찢겠습니다.

회 중 : 아멘 [묵상]

[다같이 잔을 든다. 집례자가 회중에게 보이며]

집례자 : 주님의 피 여러분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회 중 : 아멘. [묵상]

[전체 회중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앞에 둔 후]

집례자 : 주님의 몸!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아멘 [먹는다]

집례자 : 주님의 피!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아멘 [마신다]

11. 주기도문

집례자 : 주님과 연합된 교회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구합니다.

12. 나의 존재와 소유의 봉헌

존재와 소유의 봉헌

집례자 : 이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희들의 영혼 그리고 몸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당신이 기뻐하실 거룩하며 살아 있는 제물로 봉헌하나이다.

겸손히 비옵기는 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한 저희들 모두 당신의 은혜와 거룩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많은 죄로 인해 감히 저희들 당신께 어떤 희생의 제물도 드릴 자격이 없으나 간구하옵나니 저희가 은혜의 힘으로 드릴 수 있게 된 이 의무와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공로는 헤아리지 마시고 다만 저희가 지은 죄만을 용서하옵소서.

다같이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 그분의 하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 당신의 성령으로 저희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세계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모든 찬송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전능하신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멘.

13. 영광송

IV. 세상으로 나아감

14. 파송의 말씀

집례자 : 교회여!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높은 부름을 향해 살아가십시오.

회 중 :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15. 축도

집례자 :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회 중: 형제 자매께도 함께

집례자 :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형제 자매께도 함께

집례자 :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회 중: 형제 자매께도 함께